

<제1차>

한국문학탐방 자료집

2006

|| 전남 남부지역(4월 5일 - 4월 8일) ||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목 차>

1. 탐방단 구성	---	3
2. 일 정 표	---	4
3. 발표장소/배정표	---	5
4. 전남남부 지도	---	7
5. <1조> 송 순	---	11
6. <2조> 정 철	---	15
7. <3조> 김남주	---	20
8. <4조> 윤선도	---	25
9. <5조> 고정희	---	32
10. <6조> 정약용	---	36
11. <7조> 김영랑	---	42
12. <8조> 조정래	---	48
13. <9조> 김승옥	---	55
14. <10조> 조태일	---	58
15. <11조> 김동리	---	62
16. <12조> 박경리	---	67

1. 한국문학탐방단 구성

단장 : 학과장

조별 지도교수

1, 2, 3, 4조 : 오춘택 교수

5, 6, 7, 8조 : 임동훈 교수

9, 10, 11, 12조 : 이기인 교수

재정 및 진행 기록 담당 : 김정숙 조교

전체 진행 사회 : 학회장(최진용)

숙식 관리(방배치) : 부학회장(김주환)

<배차> (총 73명)

1호차 : 1-6조, 오춘택 교수, 임동훈 교수, 조교, 학회장, 동뢰(대학원생) - 34명

2호차 : 7-12조, 이기인 교수, 부학회장 - 39명

<준비물>

공동준비물 : 지도, 비상약 등

개인준비물 : 의복, 필기도구, 카메라, 자료집, 학생증, 우산, 세면도구 등

<주의 사항>

유적 관람 시간 : 발표와 자유 관람을 반씩

자유 관람할 때 개인행동도 조별로 실시할 것

2. 일정표 : * 출발과 도착은 버스 및 배의 시간을 뜻함(휴게소 정차 시간 : 10분)

	4월 5일(수)	4월 6일(목)	4월 7일(금)	4월 8일(토)
08	07:40 연암관 1층 앞 주차장 집합 08:00 학교 출발	07:30 조식: 갈매기동지 [짐 가지고] 08:20 토말 출발(배:장보고)	08:00 조식: 국향정 08:30 해남 출발	07:30조식:선암장식당 08:00 선암사 출발
09		30 보길도 청별항 도착 (버스연락: 061-553-7077)	00 강진도착 김영랑 생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	30 조태일시문학기념관 (061-362-5868)
10		00 세연정 주차장 도착 <어부사시사> 시비 40 세연정 출발 낙서재 도착	00 강진 출발 50 벌교 도착	조태일의 <국토서시> 10 태안사 출발 40 화개장터 도착
11		보길도의 유적들 10 곡수당 30 동천석실	<태백산맥> 의 무대 부용교, 홍교 김범우의 집	<역마> 의 배경 10 화개장터 출발 30 하동평사리 최참판댁
12	30 담양IC 도착 중식: 백제회관 (061-381-1231)	00 청별항 중식: 섬마을식당 (061-553-6727) 40 보길도 출발	00 벌교 출발 20 순천 대대포 도착 중식: 갯마을가든 (061-741-3121)	도착 <토지> 의 무대 40 평사리 출발 50 하동읍 도착
13	00 담양출발 면양정도착 <면앙정가> 시비 30면양정출발 송강정도착 <사미인곡> 시비	40 토말 도착	00 <무진기행> 의 무대	중식: 기룡가든 (055-883-5700) 30 하동 출발
14	00 출발 10 구묘역 도착 김남주 묘소 <노래> 30 출발 50 식영정도착 <성산별곡> 시비	00 고정희 생가 도착 <상한 영혼을 위하여> 40 생가 출발	00 대대포 출발	
15	20 식영정 출발 25 소쇄원 도착 (조별 자유 관람)	00 녹우당(윤선도) 도착 <오우가>	00 선암사 숙소 도착 숙소: 선암장(짐풀고) 10 숙소 출발(도보)	
16	00 담양 출발	00 녹우당 출발 20 다산초당 도착 <애절양> <전론>	20 선암사 도착 승선교, 조정래 생가터 해우소	
17		30 다산초당 출발	00 선암사출발 30 숙소도착	
18	00 토말(땅끝) 도착 숙소: 푸른모텔 석식: 갈매기동지 땅끝기념비(조별자유관람)	00 해남숙소 도착 숙소: 사파이어모텔 석식: 국향정	00 석식(만찬) 숙소: 선암장 석식: 선암장 별미식당	00 춘천 도착 학교 해산

3. 2006년 한국문학탐방 발표 장소 및 배정표(안)

참고 : [임형의남도문화기행 <http://namdou.com/> 순천대남도문학기행: <http://www.gonamdo.or.kr/>]

1. 송순(가사) 가사문학관 <http://www.damyang.go.kr/new/gasa/index.htm>

① 면앙정 : I. 송순의 생애(김가영) II. 송순의 작품세계(강동수) III. 송순과 면앙정가단(강정우) IV. <면앙정가>의 이해(최문관) V. 면앙정과 관련유적(김민경)

2. 정철(시조 및 가사) 가사문학관 <http://www.damyang.go.kr/new/gasa/index.htm>

① 송강정 : I. 정철의 생애(김은주) II. 정철의 작품세계(길준상) III. <사미인곡>의 이해(김은희)
② 식영정 : IV. <성산별곡>의 이해(곽호윤) V. 정철과 창평과의 관계(박건욱) VI. 정철 관련유적(김반야)

3. 김남주(현대시)

① 묘소 : I. 김남주의 생애(김진규) II. 김남주의 작품세계(김은경), III. <노래>의 이해(백동호) IV. 김남주의 민주화 운동과 문학인식(김지섭), V. 김남주 관련유적(김성근)(해남 생가, 광주비엔날레 공원 시비, 광주518 구묘역)

4. 윤선도(시조, 한시) <http://myhome.naver.com/dangmea/> <http://www.bogildo.com/> <http://www.bogilisland.co.kr/>

① 세연정 시비(주차장) : I. 윤선도의 생애(박나영), II. 윤선도의 작품세계(김형규), III. <어부사시사>의 이해(박영은)
② 세연정 : IV. 작품배경(<보길도지>어부사시사 관련 부분, 세연정의 건축 및 유흥)(이상구),
③ 낙서재, 곡수당, 동천석실 : V. 보길도의 유적들(문솔빈)
④ 녹우당 : VI. <오우가>와 <산중신곡>의 이해(박나라), VII. 윤선도의 문학관(금채동기)(김인화), VIII. 윤선도 관련유적(박정성)

5. 고정희(현대시) <http://www.gohjunghee.net/>

① 생가, 묘소 : I. 고정희의 생애(박은희) II. 고정희의 작품세계(박지운), III.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이해(진희선), IV. 고정희의 문학관(박정은), V. 고정희 관련유적(해남 생가, 광주문예회관 시비, 해남 묘소)(변현지)

6. 정약용(한시, 문학론, 한문소설, 실학사상)

<http://www.tasan.or.kr/> http://www.nyj.go.kr/dasan/dasan_index.html

① 다산초당 : I. 정약용의 생애(김수정) II. 강진 유배시기의 작품세계(탐진촌요, 탐진농가, 탐진어

가)(성지현) III. <애절양>의 이해(우윤지) IV. 정약용의 자주적 문학관(손진희) V. 토지제도 <전론>의 이해(박진희) VI. 정약용 관련유적(송아름)

7. 김영랑(현대시)

① 김영랑 생가 : I. 김영랑의 생애(이민혁) II. 김영랑의 시세계(안준호) III.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이해(유아미) IV. 김영랑의 문학관(원수진) V. 김영랑 관련유적(안윤정)

8. 조정래(현대소설) <http://www.jojungrae.com/> <http://www.seonamsa.co.kr/>

① 별교역, 철다리, 부용교(소화다리), 홍교(황갯다리), 김범우의 집, 현부자집, 진트재 : I. 조정래의 생애(이한나) II. 조정래의 소설세계(아리랑, 한강 등)(여환정/연취모/유지나/윤옥철) III. <태백산맥>의 이해(이원경) IV. 별교와 <태백산맥>의 배경(이범희)

② 선암사(생가 터) : V. 조정래 관련유적(윤성준)[태어난 곳 : 선암사, 초년시절 : 별교, 서울생활]

9. 김승옥(현대소설)

① 순천시 금곡동 154번지, 황혼녘의 순천만 대대포구 갈대밭과 포구, 뚝방길, 다리 : I. 김승옥의 생애(이현석) II. 김승옥의 소설세계(이승준) III. <무진기행>의 이해(장희주) IV. 순천 대대포와 <무진기행>의 배경(이진범) V. 김승옥 관련유적(이승희)

10. 조태일(현대시) 묘소 : 광주 518국립묘지(5묘역 53번)

1) 조태일시문학기념관(곡성군 죽곡면 태안사) : I. 조태일의 생애(전석민) II. 조태일의 시세계(이영수) III. <국토서시>의 이해(허승범) IV. 조태일시문학관(양정희) V. 조태일 관련유적(이은영)(생가, 시문학관, 묘소)

11. 김동리(역마)

I. 김동리의 생애(최동호) II. 김동리의 작품세계(이혜림) III. <역마>의 이해(조혜근) IV. 화개장터와 <역마>의 배경(정혜인) V. 김동리 관련유적(전상호)

12. 박경리(토지)

1) 하동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 : I. 박경리의 생애(전세룡) II. 박경리의 작품세계(최강철/하강/하성민/한민수) III. <토지>의 이해(김보라/이재우) IV. 평사리와 <토지>의 배경(장보영) V. 박경리 관련유적(충무, 원주 토지공원, 원주 토지문학관, 하동평사리)(함다미)

4. 2006 한국문학탐방 지도



<담양 : 면양정, 송강정, 식영정, 소쇄원>



<광주518국립묘지: 김남주(구묘역), 조태일(신묘역)>



<완도군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 : 세연정, 낙서재터, 곡수당터, 동천석실>



<해남군 삼산면, 고정희와 김남주의 생가>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 >



<강진군 김영랑 생가와 다산초당>



<보성군 벌교, 태백산맥의 무대: 철교, 남도여관, 소화다리, 자애병원, 홍교, 김범우집, 현부자집, 진트재>



<순천 대대표 : 무진기행의 무대>



<순천 선암사 : 조정래의 생가터>



<곡성군 태안사 : 조태일시문학관, 출생지>



<경남 하동, 화개장터 : 김동리의 역마 무대>

<평사리 최참판댁 : 박경리의 토지 무대>

I. 송순의 생애

20051104 김 가 영

송순(宋純 : 1493~1582)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면앙정가단(倅仰亭歌壇)의 창설자이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다. 성격이 너그럽고 후하였으며 특히 음률에 밝아 가야금을 잘 탔기에 풍류를 아는 재상으로 일컬어 졌다고 하는데 <면앙정가>는 그의 시문학의 산실인 '면앙정'을 소재로 지어진 가사로서 송순의 풍류적 면모를 담고 있다.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이 작품은 그 후 <성산별곡>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 작품에서 보이는 자연미와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는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듣고 있다. 정극인-송순-정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이른바 '호남가단'의 전개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이현보-이항-권호문으로 이어지는 '영남가단'과 그 성격을 달리 한다.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의 경지를 추구하는 강호가도가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는 가운데 영남가단은 심성을 닦는 것을 우위로 내세우지만 호남가단은 풍류 쪽에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작품의 예술성 면에서는 호남가단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면앙정가>는 구성체제와 표현형식의 완숙함, 시어의 선택에 있어서 순수한 우리말의 자유로운 구사와 기발한 조사법의 활용, 조어의 공교함 등에 의해 각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그로 인한 정감의 절실한 표현을 이루어 냈다는 데서 가사문학 중 최고의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제월봉과 면앙정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는 서사와 각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묘사하면서 작자의 풍류생활을 드러내는 본사, 작자의 멋스러운 삶이 임금님의 은혜임을 밝히는 결사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진 <면앙정가>는 결사의 한 줄에서 "이 몸이 이령 궁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라고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묻혀 사는 자신의 생활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자가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속적 진출을 꿈꾸고 있으며, 완전한 자연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강호가도 시인들의 귀착점이 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는 <면앙정가>의 창작시기를 작자가 40대 초반에 잠시 벼슬에서 물러나 있는 때로 잡고 있는 것인데, 창작시기에 대해서는 말년에 벼슬을 할 만큼 한 후에 면앙정으로 돌아와서 지었다는 설도 있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II. 송순의 작품세계

20061101 강 동 수

한국문학탐방 과제를 받았을 때 송순이라는 한 조선시대의 유학자가 우리나라 국문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남기었는지에 대해 그리 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 수업의 리포트를 맡게 되면서 조선중기의 송순이라는 이 사람이 왜 수능문제의 출제 될 정도의 작품성을 인정받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리포터의 서장을 열어볼까 한다.

송순의 작품들은 크게 그의 문집 《기촌집》과 《면앙집》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면앙정가>라

볼 수 있다. 그는 사람의 출신으로 확고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신진 사대류인 유학계의 거장 이황과 많은 대립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의 문학작품은 자신과 대립을 이루는 이황의 작품과도 흡사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그의 문학은 자연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유학적 사상으로 신진 사대부의 대립 속에서 세속을 벗어나려는 그의 속마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의 대표적 작품인 면양정가를 보기로 하자.

<번거로운 인간세상을 떠나와도 편히 쉴 여가가 없구나. 이 산 저 산 구경도 다녀야 하고, 물소리 새소리도 들어야 하고, 바람도 쐬러 다녀야 하고, 달맞이도 해야 하고, 밤도 주으러 다녀야 하고, 낚시질도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쪽 산에 앉아서 구경하고, 저쪽 산에 가서 등산도 하여 보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이 중에는 버리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노래 소리, 가야금 소리, 해금 소리, 방울 소리, 온 가지 소리에, 술에, 자연에, 취해 흥겨우니, 근심인들, 시름인들, 붙어있을 수 있겠는가?>

속세를 떠나고도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그의 삶과 작품세계를 잘 나타내는 구절이라 볼 수 있겠다. 이어서 또 다른 송순의 작품인 시조 “십년을 경영하여”를 보도록 하겠다.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 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맛겨두고
강산은 들일 디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해설 : 십 년 동안 계획을 세워 기초를 닦아 초가 삼간을 마련하여 나 한 칸, 달 한 간에 맑은 바람에게 한 칸 맡겨두니 강과 산은 (집 안에)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주변에 돌려 두고 보겠노라.

이 시조 “십년을 경영하여”는 송순 말년에 벼슬을 그만 두고 고향인 전라도 담양에 내려가 면양정 에서 쓴 시이다. 이 시조역시 위 면양정가에서 나타났었던 자연의 귀의 하고 싶어 했던 송순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조라 할 수 있겠다.

송순은 가사문학의 강호가도를 확립을 한 조선시대 국문학의 거장이라 생각 한다.비록 그가 당파 싸움에 어울려 정철만큼의 많은 가사 작품을 남기지 못 한 것은 사실이나 가사 작품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이라 말 하고 싶다.

III. 송순과 면양정가단

20061103 강 정 우

면양정은 1972년 8월 7일 전라남도기념물 제6호로 지정되었다. 1533년(중종 28) 송순(宋純:1493~1583)이 건립하였는데, 이황(李滉:1501~1570)을 비롯하여 강호제현들과 학문을 논하며 후학을 길러내던 곳이다. 봉산면 제월리 제봉산 자락에 있는데, “내려다 보면 땅이, 우러러 보면 하늘이, 그 가운데 정자가 있으니 풍월산천 속에서 한 백년 살고자 한다”는 곳이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며 추녀 끝은 4개의 활주가 받치고 있다. 목조 기와집으로 측면과 좌우에 마루를 두고, 중앙에는 방을 배치하였다. 현재의 건물은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며, 1979년에는 지붕의 기와를

교체하였다. 최초의 모습은 초라한 초정으로 바람과 비를 겨우 가릴 정도였다고 한다.

송순은 면양정에서 면양정가단을 이루어 많은 학자·가객·시인들의 창작 산실을 만들었다. 가단에 출입했던 인사들로는 임제 · 김인후 · 고경명 · 임억령 · 박순 · 이황 · 소세양(蘇世讓) · 윤두수(尹斗壽) · 양산보 · 노진등 많은 사람들이 있다. 정자 안에는 이황·김인후·임제·임억령 등의 시편들이 판각되어 걸려 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송순의 시문활동의 근거지이며, 당대 시인들의 교류로 호남제일의 가단을 이루었던 곳이다.

걸려있는 시편들 중 송순의 면양정시를 살펴보자.



俛有地, 仰有天
굽어보니 땅이요, 우리르니 하늘이라
亭其中, 興浩然
정자를 그 가운데 지어 호연지기를 불러일으키노라
招風月, 揖山川
바람과 달을 부르고 산과 시내에 절하누나
扶藜杖, 送百年
명아주 지팡이에 의지하여 한평생을 보내누나

이 것뿐만 아니라 훌륭한 많은 시편들이 면양정에 걸려 있다고 한다.
이번 탐방을 기회로 면양정에 가 면양정의 내력과 그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글을 쓰던 많은 훌륭한 작가들의 숨결을 느끼고 싶다.

IV.면양정가의 이해

20011173 최 문 관

면양정가는 조선 중종 때 송순이 15년간 관직생활을 하다가 41세 때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자신의 고향인 전라도 담양 기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곳 제월봉에 면양정을 짓고 주변의 산수와 4계절의 경치변화에 따른 자신의 풍류 생활을 표현한 은일가사이면서 서정가사이다. 면양정이 있는 제월봉이 무등산 줄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여 무등곡(無等曲) 이라고도 한다.

면앙정가의 구성은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으로, 본사를 계절변화에 따라 6단 구성으로도 나눌 수 있다. 3단 구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사에서는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을, 본사는 면앙정에서 바라본 주위의 경치와 사계절의 변화에 따른 면앙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결사에서는 작자의 소요자적하고 안빈낙도하는 풍류생활을 하는 것이 ‘亦君恩(역군은)이샀다’ 곧, 임금님의 은혜이다 라고 끝맺고 있는데, 이는 작자가 자연 속에 묻혀 있으면서 완전히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계신 세속에 대한 갈망을 나타내고 있다. 서사와 본사는 서경을, 결사는 서정을 묘사한 선경후정의 작품이다.

면앙정가는 정극인의 ‘상춘곡’의 자연 친화적인 면을 이어 받고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의 영향을 준 작품으로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면앙정에 가보면 정자 옆에 ‘면앙정가비’가 있는데, 이 비문에는 면앙정가 작품속의 앞부분인 서사에서 본사로 넘어가는 부분을 비문에 새겨 놓았다. 그 내용은 제월봉에 면앙정을 앉히고 그 모습을 푸른 학이 날개를 펼쳤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 내려온 시냇물의 모습을 긴 비단을 펼쳐놓은 듯 두 마리의 용이 몸을 뒤틀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시냇물의 사정(沙汀)에서 노니는 기러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면앙정가비 中에서..

너럭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치고
亭子(정자)를 안쳐시니	
구름 탄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릇는 듯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해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푸른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듯하다)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녹린 물히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兀兀(울울)히 퍼진 드시
넙써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雙龍(쌍룡)이 뒤틀는 듯	긴 김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므숨 일 비얏바
돈는 듯 썩로는 듯	밤늦조로 흐르는 듯

(옥천산, 용천산 에서 내려온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퍼진 듯이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지나 말지 쌍룡이 몸을 뒤틀는 듯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느라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 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하다.)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곳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괴력기논	므스거슬 어르노라
안즈락 느리락	모드락 훗트락
盧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조스니논노

(물 따라 벌려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퍼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느라고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 흩어졌다 하며 갈대밭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 다니느냐?)

<2조 - 정철>

1. 정철의 작품세계

20061105 길 준 상

고교 문학시간에 정철의 <속미인곡>이나 <사미인곡>을 보고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떠나서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당시 임금님 마음에 들려고 글을 썼든 안썼든 작품만 봤을 때는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정철선생님의 작품에 대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철선생님은 을사사화로 말미암아 15세까지는 거의 학문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가 16세 되던 해 부친의 귀양살이가 풀려, 부친을 따라 선조의 묘소가 있는 담양 창평으로 내려와서 비로소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27세에 문과에 급제할 때까지 이곳에서 다감한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른 봄의 설중매, 겨울이 오면 언제나 볼 수 있는 명봉산 위의 학의 무리, 이러한 자연의 풍경은 그의 뇌리에 깊게 인상지어져 <식영정 이십영> <성산별곡> <전후미인곡> 등의 국문 시가와 수많은 한시 창작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문학은 임금님에 대한 연모의 시가와 풍류의 시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속미인곡 중 임금님에 대한 시가를 살펴보면 임금의 사랑을 잃은 것이 자기가 교태를 너무 과히 부린 것이라 하여 스스로를 반성하고 달이 되어 님 계신 창밖을 비추겠다고 다짐하면서 각 시님에게는 굶은비나 되라고 하였는데 사미인곡의 <범나뉬>나 속미인곡의 <달>이나 자기의 분신을 나타내었고 특히 굶은비나 되라고 한 것은 그 뜻을 심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피난가 계시는 임금님에 대한 연군의 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송강 문학의 큰 맥을 이루는 특징의 하나는 서정성입니다. 즉, 탄식, 눈물, 체념, 안타까움 등으로 인간적인 휴머니즘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송강은 또한 술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송강은 유달리 술을 좋아하였고 이 취흥 때문에 마치 신선인 된 양 글을 쓸 수 있었고 시가의 세계도 넓히게 되었습니다. 유교가 모든 제도를 지배하던 당시에도 그의 시가는 자연을 벗 삼아 신선처럼 글을 썼습니다. 시가에서 취흥이 잘 나타난 부분은 <관동별곡>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명사길 니근말이 취선을 빗기시러 바다할 것태두고 해당화로 드러가니 백구야 나디마라 네 벗인 줄 었디아난."

그는 술에 취해 흥얼거리며 갈매기에게 벗을 하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철 문학의 풍류는 취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연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조 18년 (1585) 이후 귀향을 떠났을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행하여 시련과 실의가 교차된 시기였으나 문학적으로는 뛰어난 재질을 마음껏 발휘할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명리를 버리고 유수와 벗 삼고자 하는 심정도 보이지만 자신의 고립의식이 잠재해 있어 완전한 자연과의 친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철의 시가의 특징은 관념문학이라는 것 입니다. 밑에 시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쉴쉴히 나뉘워 지는 소리에

굶은 빗소리가 하여

중을 불러 문밖을 나가보랬더니

달이 시냇가 나무에 걸려 있다 하네.

역시 느끼는 거지만 송강 정철 선생님은 당대최고의 문인이자 풍류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II. <사미인곡>의 이해

20051108 김 은 희

I. 머리말

이 작품은 작자가 1585년 8월 당파싸움으로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을 받고 고향인 창평에 은거하면서 임금을 사모하는 정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연모하는 마음이다 기탁하여 고백한 것으로 고신연주의 지극한 정을 유려한 필치로 묘사하였다.

꽃 디고 새님 나니 綠帟陰음이 싹갸느디
羅나幃위 寂적寞막하고 繡슈幕막이 비여 있다
芙蓉蓊을 거더 노코 孔雀雀작을 돌려 두니
굿득 시름 한디 날은 엇디 기뻐던고
鴛鴦鴦錦금 버혀 노코 五五色色線선 플터 내여
금자히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내니
手淸品품은크니와 制制度도도 그줄시고
珊珊瑚호樹슈 지게 우히 白晝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디 바라보니
山山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천리萬만리 길힐 뉘라셔 츠자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II. 작품 해설

서사는 한평생의 연분으로 만난 임과(임금) 이별하고 나서의 비활 데 없는 그리움과 시름을 노래하였다. 즉 주인공의 극진한 사모의 정과 자탄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본사는 춘하추동 사계절마다 고조되는 연정을 각각 규칙적 길이의 반복 교직으로 노래하고 있다. 봄·가을보다 여름·겨울의 사연이 많이 길어진 것은 긴 여름 해와 겨울밤의 그리움의 고통이 더욱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춘사에는 '매화'로 표상되는 자신의 절조를, 하사에는 '원앙금 오색선의 옷'을 지어 보내고자 하는 여인의 세심한 정성을 통하여 자신의 다함없는 정성스런 마음을 전하고자 하였다. 추사에는 '청광'으로 어둔 밤에 밝게 비추는 달빛을 임께 드려서 온 세상의 어두움과 그리움, 고통까지도 두루 환하게 씻어 주기를 소망하는 심정을 담고 있다. 동사에는 '양춘'으로 추운 겨울에 따뜻한 봄 햇살을 임에게 전하고자 하는 성심을 밝히고 있다. 즉 춘하추동 사계절마다 모두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정성을 임의 수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자세를 보여준다. 결사는 서사와 본사에서 점층적으로 고조되어 온 임을 향한 그리움과 시름 때문에 마침내 불치의 병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편작'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을 버리고 끝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한 임에 대해서는 원한을 품기보다 오히려 불변하는 충성으로 죽어서도 임이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임을 따르겠노라는 일편단심을 '범나비'가 되어 표현한다.

III. '사미인곡'의 문학적 우수성

이 작품은 임금인 선조를 사모하는 연군의 정을,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연모하는 마음에 비겨서 노래하였다. 본사의 사계절의 모습은 <성산별곡>의 모습과 동일하다. 그러나 <성산별곡>이 신선의 세계

를 노래하고 있다면 <사미인곡>은 여성 화자가 그리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 보다 우아함과 비장의 미의식이 드러난다. <사미인곡>은 송강의 자신 있고 외향적이며 멋있는 과장을 활용한 연주지사이다. 표현상의 기법으로는 비유법, 변화법을 비롯하여 연정을 심화시키는 점층적 표현이 쓰였다. 시상을 급격하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정서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한국고전문학선 송강가사 · 다산시선 (흥신문화사)
- 원본 국어국문학 叢林 송강가사· 송강가사 (정음사)

Ⅲ. <성산별곡>의 이해

20061104 곽 호 윤

성산별곡은 조선조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삶의 한 단면을 보여 준 정철의 작품이다.

작품에 관련된 인물들의 생애와 견주어서 좀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16세기 조선조 사대부들의 삶의 한 방식을 드러내 준 작품이라 하겠다. 조선조의 사대부들은 사유의 토지를 생활 근거로 하여 나아가 조정의 관료로서 치국평천하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고, 물러나면 수신제가에 더욱 힘쓰면서 강호의 처사로서 자연을 벗삼아 여유로운 삶을 누렸다. 바로 이러한 사대부들의 생활의 양면성이 그들로 하여금 관료적 문학과 처사적 문학의 세계를 넘나들게 하였다. 이렇게 토지에 기반을 둔 생활 근거가 확고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이현보나 송순, 윤희도 등과 같은 여유만만한 강호 생활이 가능했으며, 관료나 처사의 위치에 관계 없이 이른바 귀거래의 강호 생활을 높이 평가하는 관념적 풍조 또한 보편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이상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리학의 학문적 성격으로 보아 사대부들의 귀거래의 추구를 결코 그들의 본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들은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에 몰입한 듯, 현실에 대한 모든 미련을 떨치고 숨어 지내다가도, 때를 만나 기회만 오면 그 자연을 서슴지 않고 버리고 현실에 뛰어들곤 했다.

* 연대 : 1560년대(작자 25세)

* 배경 : 성산(星山-별묘)은 송강이 을축사화로 인하여 귀양 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10여년간 지냈던 전남 창평 지곡리(현재는담양군 남면 지곡리)이다. 이 가사는 성산의 풍경과 식영정(息影亭), 서하당(棲霞堂)을 중심으로 읊은 것

<본문>

엇그제 비잔 술이 어도록 니건나니 잡거니 밀거니 슬카장 거후로니 마암의 매친 시름 저그나 하리나 다. 거문고 시웁 언저 풍입송 이라고야. 손(客)인동 주인(主人)인동 다 니저 바려세라. 장공(長空)에 뗏 난 학이 이 골의 진선(眞仙)이라. 요대월하의 행여 아니 만나산가. 손이셔 주인다려 날오대 그대 권가 하노라.

<해석>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술잔을 잡거니 권하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이 조금 이나마 덜어지는구나. 거문고 줄을 얹어 풍입송을 타자꾸나. 손님인지 주인인지 다 잊어버렸도다. 높고 먼 공중에 떠 있는 학이 이골의 진선이라. 이전에 달 아래서 혹시 만나지 아니하였는가. 손님이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곧 진선인가 하노라.

IV. 정철과 창평과의 관계

20021121 박 건 욱

송강 정철(松江 鄭澈, 1536-1593). 그는 ‘한문시대’인 조선시대에 우리 글로 ‘사미인곡’, ‘관동별곡’, ‘성산별곡’ 등을 비롯한 주옥같은 작품을 창작하여 민족시인으로 그 위상이 특별한 문학인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위상이 특별한 문학인’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정작 고향인 담양 땅에서부터 대접이 소홀한 듯하다.

‘태정대세문단세예성연중인명선...’으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사의 연결선상에서 ‘인명선’시대를 살았던 송강은 정치적으로 혼란시대를 살아야 했다. 선비정신과 사림파를 선호했던 인종이 9개월 만에 승하하자, 명종이 즉위했는데 정철은 명종과 소꿉 친구이면서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려운 사이)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명종 2년인 1547년 양재역벽서 사건이 터지면서 을사사화 여파가 연일 정씨 송강의 집안으로 몰아쳐 풍비박산이 날 정도였다. 4년 뒤 아버지의 유배가 풀리자 송강은 전남 담양의 창평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됐다. 정송강은 이곳 창평 땅에서 사촌 김윤제, 하서 김인후, 석천 임억령, 면앙 송순, 고봉 기대승, 송천 양응정 등 문인 학자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동시에 서하당 김성원, 제봉 고경명, 구봉 송익필, 옥봉 백광훈, 고죽 최경창, 율곡 이이, 우계 성혼 등 평생의 벗들과 직접 만나거나 우의를 나누며, 인품과 학문 그리고 문학성을 배양할 수 있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처럼 ‘담양골 10년 동안’ 송강 정철은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에 창평의 지역 위상은 대단했다. 영조 35년에 작성된 ‘여지도서’와 그 뒤에 작성된 ‘호구총수’ 등에 의하면 창평현은 10개면에 2천여호, 7600여 가구가 넘는 대 고을이었다. 이런 창평(지금은 담양군 남면 지곡리 지실마을)에 살았던 송강 정철은, 광주의 고봉 기대승, 장성의 하서 김인후에게 학문을 배운 뒤에 정치는 한양 등지에서, 문학은 이곳 창평을 주무대로 하면서, 한반도 제일의 문학의 고장으로 부상시키기 시작했다.

송강을 키운 문학의 고장인 지실 마을 인근 지역은 광주호 호수 풍경과 강 남쪽 무등산의 정경으로 인해 ‘광주권 최대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광주호는 광주천을 막은 인공댐으로 옛이름인 자미탄(紫薇灘)에 걸맞게 배롱나무처럼 아름다운 호수이다. 정철은 지실 마을 뒷산의 만수명산로(萬壽名山路)를 산책하면서 무등산도 바라보고 자미탄의 물흐름 소리도 들으면서 머리를 식혔다. 그 길을 걸으면서 시인의 길을 한걸음씩 내디뎠을 것이다.

담양군은 한반도 대밭이자 죽향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문학의 고장 이미지는 뒷마당으로 사라지고 대나무골이란 이미지가 강해져 버렸다. 담양군청과 전남도청에서도 ‘빨리 돈이 되는 대나무 산업화’를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는 분위기가 강해 보인다. 송강정철문학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에는 ‘송강문학관’이 있다. 송강 정철이 부모상을 당하여 시묘살이 했던 곳에는 ‘송강마을’과 ‘송강고개’란 지명도 전해온다. 그리고 충북진천군에는 1665년 세운 ‘신도비’와 1983년 세운 송강사(松江祠)와 유물기념관이 있다. 그러나 정작 송강 정철의 문학혼이 가장 뼈저리게 녹아있는 남도 담양골에는 송강 정 이외에는 별다른 ‘송강 이름’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치 때문에 기타 이유 때문에 시인 송강을 망각해서는 곤란할 듯싶다. 송강 정철은 전해지는 작품으로 인해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이며 이곳이야말로

송강 정철의 혼이 가장 많이 서려 있기 때문이다.

V. 정철 관련 유적

20061106 김반아

① **환벽당** - 창계천을 사이에 두고 식영정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환벽당은 <성산별곡>이 탄생한 식영정, <사미인곡>이 탄생한 송강정과 함께 송강 정철과 관련되었다 하여 정송강 3유적으로 불리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1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송강 정철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옵니다. 어느 여름날 사촌 김윤제가 환벽당에서 낮잠을 자는데 그의 꿈에 환벽당 앞 용소에서 청룡이 하늘을 승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 용소로 가보니 어린 동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로 송강 정철이었던 것이죠. 사촌이 송강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의 영특함이 대단하였고 사촌은 송강을 자기 슬하에 두고 학문을 닦게 하였으며 외손녀 사위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정철은 이런 인연으로 만난 김윤제 슬하에서 학업을 배우며 27세가 되어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10여년 동안 환벽당에 머물렀습니다.

환벽당 아래 창계천가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곳은 사촌과 그의 손님들이 낚시를 즐겼던 조대이며 지금은 그 위에 기념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조대 앞이 바로 정철이 목욕하다 사촌 김윤제를 만났다는 용소입니다.

② **소쇄원** - 소쇄원은 담양벌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광주호를 끼고 구비구비 돌아 들어 별뿔(성산)의 남쪽 골짜기에 있다. 성리학자들의 은둔과 은일사상을 배경으로 1520년부터 1557년에 걸쳐 소쇄원을 만들었다. 사적 제304호로 지정된 소쇄원은 조선시대 대표적 정원으로써 약 108,560㎡ 규모이며, 주인이 기거하던 제월당을 비롯하여 광풍각, 대봉대, 내원을 감싸는 담장 그리고 시원스런 계류의 흐름으로 조성되었다.

진입공간은 대나무 숲길을 따라 밝고 어두움의 원리를 보여주며, 동쪽 언덕을 가로지른 담장의 ‘애양단’이라는 글은 북풍을 막아주고 열린 남쪽의 햇볕이 밝고 따듯함을 말해준다. 소쇄원 공간의 중추를 이루는 광풍각은 계류에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축대를 쌓아 지어졌는데 주인과 방문객들이 온갖 풍류를 벌이던 곳이다.

면앙정, 송강정, 식영정, 소쇄원 등을 통해 학문과 사상이 시가문학이란 국문학 장르로 맥을 형성하면서, 송순의 「면앙정가」와 정철의 「성산별곡」 등이 지어져 담양은 우리나라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산실로서 훗날 판소리 생성의 밑거름이 된다.

③ **식영정** - 1972년 1월 29일 전라남도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었다. 환벽당, 송강정과 함께 정송강 유적이라고 불린다. 식영정은 원래 16세기 중반 서하당(棲霞堂) 김성원(金成遠)이 스승이자 장인인 석천 임억령(林億齡)을 위해 지은 정자라고 한다. 식영정이라는 이름은 임억령이 지었는데 ‘그림자가 쉬고 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高敬命), 정철 네 사람을 ‘식영정 사선(四仙)’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성산의 경치 좋은 20곳을 택하여 20수씩 모두 80수의 식영정이십영(息影亭二十詠)을 지은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 식영정이십영은 후에 정철의 《성산별곡》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 외에 정철은 식영정잡영 10수, 하당야좌(霞堂夜坐) 1수, 차환벽당운 1수, 소쇄원제초정 1수, 서하당잡영 4수 등 수많은 한시와 단가 등을 남겼다. 그는 이곳을 무대로 하여 송순, 김인후, 기대승 등을 스승으로 삼았으며 고경명, 백광훈, 송익필 등과 교유하였다.

<3조-김남주>

I. 김남주의 생애

20051112 김 진 규

시인 김남주(金南柱 1946~1994)

1946. 10. 16 부 김태수, 모 문일임의 3남3녀중 차남(세째)으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삼산면 봉학리 535번지에서 출생.

1960년 해남중에 입학해 이강과 만남. 평생을 같이 하는 동지가 됨

1965년 광주제일고 입학. 2학년 1학기때 자퇴함.

1969년 전남대학교 문리대학 영어영문학과 입학. 친구 이강은 법대에 입학. 대학입학 후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반대운동, 대학의 '교련'수강 및 현장집체입학교육 반대운동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함.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전국 최초의 반유신투쟁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

1973년 02월 전국적 반 유신투쟁을 전개코자 '함성'의 제호를 '고발'로 바꾸고 전국배포를 목적으로 활동하다 배포직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전남대학교에서 제적됨. 복역 8개월만에 석방됨. 석방 후 낙향하여 집안일을 살피며 농사일로 소일함.

1974년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진혼가>, <젯더미> 등 7편의 시를 발표

1975년 광주에 사회과학 전문서점 카프카를 개업.

1977년 고향 해남에서 한국기독교 농민회의의 모태가 된 '해남농민회'를 결성하고 문병란, 황석영, 최권행, 김상현 등 과 광주에서 민족문화연구소를 열다.

1978년 <남조선 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고 서울에서 남민전 전위대 전사로 활동하다 보안당국의 수배를 받음. 수배 중 프란츠 파농의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을 번역, 출간([청사]) 함. 이 때 남민전 동지로 훗날 부인이 된 박광숙을 만남.

1980년 남민전 조직원으로 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광주교도소로 수감됨.

1984년 첫 시집 [진혼가]를 [청사]에서 출간.

1987년 제2시집 [나의 칼 나의 피]를 출간하고 시집 [농부의 밤]의 일어판을 출간함.

1988년 제3시집 [조국은 하나다]와 하이네, 네루다, 브레히트의 시선집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를 [남풍]에서 출간. 12월 21일 형 집행정지로 출감(수감생활 9년 3개월). 출감 후 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이사를 맡아 이후 민족문화운동에 매진함. 1989년 박광숙 씨와 결혼.

1989년 옥중 서한집 [산이라면 넘어주고 강이라면 건너주고][삼천리], 시선집 [사랑의 무기][창작과 비평사], 제4시집 [솔직히 말하자][풀빛] 출간.

1990년 광주항쟁 시선집 [학살][한마당] 출간. 민족문학 작가회의 민족문학연구소장 취임.

1991년 제5시집 [사상의 거처][창작과 비평사] 출간. 제 9회 '신동엽 창작기금상' 수상. 시선집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미래사] 출간. 산문집 [시와 혁명][나루] 출간. 하이네의 정치풍자시집인 [아타 트롤]을 번역, 출간([창작과 비평사])함.

1992년 제6시집 [이 좋은 세상에][한길사] 출간. 옥중 시선집 [저 창살에 햇살이 1, 2][창작과 비평사] 출간. 제6회 단재 문학상 수상. 건강이 악화되어 12월에 민족문학연구소장을 사퇴 함.

1994년 제3회 '윤상원 문학상' 수상. 12월 체장암 말기 선고를 받음. 체장암으로 2월 13일 02시 30분 별세.

II. 김남주의 작품세계

20061108 김 은 경

1.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세계

김남주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온 시인이다. 그는 1973년 세칭 「함성지」 사건으로 투옥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듬해 고향으로 내려가서 직접 농사를 지으며 지내다가 계간 『창작과 비평』 여름호를 통해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시집 『진혼가』에 실려진 시들을 보면 이 시기 김남주의 현실에 접근하는 시적 관심이 옥중체험을 통한 접근과 농촌현실의 경험을 통한 두 가지 체험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창작과 비평』지에 실린 시들의 대부분은 주로 옥중체험 내지는 수사과정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다. 그 당시 발표된 김남주의 시만큼 고문의 비인간적 상황이 처절하게 표현된 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을 통한 시는 농민들의 어두운 사회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농촌체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들은 김남주가 소시민적 근성을 지니고 있는 지식인 계층 전반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으로 더욱더 처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매우 독특한 어법으로 비판을 구사한다.

2. 시인으로서 김남주의 임무에서 나오는 작품 성격

김남주가 생각하는 시인의 임무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일상적 생활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미들을 일일이 폭로·선전하며 둘째로 그러한 작업을 통해 대중들을 정치투쟁의 차원으로 고무·선동하는 일이다. 이러한 김남주의 생각에서 비롯한 김남주의 시들에게는 회색이 없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계급적 이익관계에 기초한 명확한 대립만이 있을 뿐이며 그 극복에는 어떠한 타협점도 절충점도 존재 하지 않는다. 오로지 행동의 신속한 결단력만이 있을 뿐이다. 물론 이런 단호함은 확실히 그의 사람들로 하여금 충격적인 느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런 직설적인 발언과 의미의 격렬한 전달이 반드시 장점으로만 살아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갖게 한다. 하지만 김남주는 이러한 의문들까지도 무마시키면서 자신의 단호함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아주 진한 여운을 남긴다.

시인 김남주는 그 자신의 실천적 삶을 통해 80년대의 비약적으로 발전한 민족민중운동의 정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문학적 표현의 한계로서 작용해온 지배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단호한 태도로 격파해 나감으로써 80년대라는 상황에 값하는 대표적 시인의 한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III. <노래>에 대한 이해

20011129 백 동 호

노 래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네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지는 녹두꽃이 되자하네
이 산골은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하네 새가
아랫녘 웃녘에서 울어예는 파랑새가 되자 하네
이 들판은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하네 불이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네
되자 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을은
반란이 되자 하네
청송녹죽 가슴으로 꽃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이 시는 동학농민혁명을 노래한 김남주 시인의 작품이다. 1997년 『월간중앙』 9월호에 처음 실린 이 시는 김남주 시인의 『나의칼 나의피』라는 시집에 실려 있다. 이 시는 일명 죽창가 라고도 불리면서 실제 노래로 많이 불리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시나 노래를 대하고 사랑하면서 느끼게 되는 노래와 시에 대한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우리는 처음엔 흔히 노래와 시를 '꽃'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대한다. 시와 노래는 아름다운 것, 아름다움을 보는 즐거움을 주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꽃처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는 것이다.(여기에서 '날라와 더불어'는 아마 '나와 더불어'라는 뜻으로 쓰인 것 같다. 그러나 시인은 '나와 더불어'보다는 음악적인 율격을 강화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이다 자신 혼자 꽃으로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였던 시와 노래에 대한 생각이 발전하여, 시와 노래로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울부짖음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하는 것이다. 다음 구절에서 시상은 '두메'나 '산골'에서 갑자기 너른 '들판'으로 발전한다. 인식의 지평, 세계에 대한 태도가 넓어진 것이다. 그러am로 시와 노래는 '들불'이 되어 '어둠을 사르'고자 한다. 그리고 '들판'보다 인식은 인간사회의 느낌을 주는 '고을'로 넘어오고 시와 노래는 '반란'이 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무기인 '죽창'이 되는 것이다. '꽃'으로부터 '죽창'에 이르는 시와 노래의 의미는 자못 감동적이다. "

이 들판이 , 이 나라가 자기더러 “불이 되자” 하고 “타는 들녘 어둠을 사르는 들불이 되자” 하고 마침내는 “반란이 되자” 고 “죽창이 되자”고 한다면서 저 1894년대의 동학혁명군의 정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숙이 옮겨준다. 동학혁명전쟁의 만남 이후 김남주의 시와 노래의 내용은 물론 형식미에 있어서도 아주 명쾌한 보편성의 미학, 설득력의 미학, 단순명료한 전파력. 메시지 미학을 거리낌없이 창출해내어 보이고 있다. 그의 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산맥처럼 웅웅창창 거대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남성적인 메시지 전달에 가차 없이 성공하고 있다.

IV. 김남주의 민주화 운동과 문학인식

1. 김남주의 민주화 운동

1972년 가을, 김남주는 전남대 4학년 졸업반이 되었고 법대에 다니는 친구 이강은 군에서 제대하여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다. 이에 김남주는 이강에게 “나는 4학년말이라서 학생운동과는 어차피 정리해야 할 형편인데, 이제 1학년 복학생인 너가 말아서 잘하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남기고 고향으로 떠났다. 그렇지만 고향에서 독재정권의 폭거를 접하게 된 김남주는 광주로 돌아와 이강을 만났다. 둘은 지하신문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고 1972년 광주학생항일운동 당시의 지하신문과 러시아 혁명기의 지하신문을 연구하였다. 만들려는 신문 이름은 ‘함성’으로 정하고 김남주는 신문의 문안작성과 배포를 맡았다. ‘함성’지는 주로 10월 유신의 폭거에 대한 저항을 부추기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를 ‘함성지 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으로 김남주는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후 석방되어 광주에서 ‘카프카 서점’을 운영하면서 후배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다. 1978년에는 광주에서 황석영, 최권행, 김상윤 등과 함께 ‘민중문화연구소’를 개설하고 초대 회장이 되기도 한다. 이곳에서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을 번역하고 후배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려는 강의를 하였다. 그렇지만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의 밀고로 수배대상이 된 김남주는 서울로 도피했다. 서울에 온 김남주는 1978년 9월 4일 ‘민주회복구속자협의회’에서 알게 된 박석률의 권유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즉 ‘남민전’에 가입한다. ‘남민전’에서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및 기관지 ‘민중의 소리’를 8차례에 걸쳐 배포하였는데 그는 창간호에 창간사를 썼고 제2호의 가십란에 ‘백성의 마음은 속일 수 없다 - 돈과 권력의 공합’이라는 글을 썼다. 또한 <아세아아프리카 연감>을 번역하여 나온 수입을 조직의 경비로 사용하고 엥겔스의 <반뒤링론> 등 여러 가지 이념서적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조직원의 교양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하게 하였다. ‘남민전’은 민청학련 등 학생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주구국학생연맹’, ‘민주구국교원연맹’, ‘민주구국농민연맹’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민주구국노동연맹’의 결성을 시도하던 중 1979년 10월 4일 김남주, 이재문, 이문희, 차성환, 이수일등을 비롯하여 1979년 11월까지 84명의 조직원이 구속되었다. 그 곳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1988년 12월, 형집행정지로 9년여 만에 석방된 그는 수감 중 선보인 첫 시집 <진혼가>를 시작으로 <나의 칼 나의 피>(1987), <조국은 하나다>(1988), <사상의 거처>(1990), <나와 함께 모든 노래가 사라진다면>(1995) 등을 펴내며 ‘혁명’과 ‘반역’의 정신으로 모순된 현실을 넘어설 것을 설파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13일, 27년 만에야 김남주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에서 13일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중 김남주를 비롯한 29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2. 김남주의 문학인식

“나는 사랑하고 증오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말을 시에서 적으며 사상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처럼 사랑과 증오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47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특히 감옥생활 9년3개월 동안은 칫솔을 갈아 우유곽에 300여 편의 시를 눌러냈다. 김남주의 시와 글은 ‘싸움’이나 ‘투쟁’이라는 말로 가득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김남주의 표현을 다시 “나는 투쟁한다, 그러므로 존재 한다”로 바꾸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는 시를 쓰기 위해서 문에 이론 같은 것을 따로 학습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나는 표현능력, 기발한 발상법, 완벽한 형식 따위가 뛰어난 문학작품을 생산해 내는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대한 작품을 창조해 내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삶인 것이다. 그 길이란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비인간성, 부패와 타락에 대한 전면전에 시인 자신이 몸소 참가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다.”라며 시인의 태도와 시의 성격에 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그리하여 김남주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참여시를 여러 편 남겼다.

V. 김남주 관련 유적

20061101 김 성 근

1. 김남주 시인의 해남 생가

김남주 시인의 생가는 한반도 땅끝으로 가는 길목,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봉학리에 있다. 지금 이 생가에는 고은 시인이 쓴 표지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이 집은 동생(김석중)이 지키며 살고 있다.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 나는 자유이다"라고 외쳤던 김남주. 그는 시인이라기보다는 혁명을 꿈꾸고 실천했던 혁명가였다. 그에게 시는 혁명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런 김남주의 생가는 못 다 이룬 혁명의 잔해만 남아있고 김남주 시인의 삶처럼 외롭고 남루하게 남아있다

2. 광주 비엔날레 공원 시비

시비는 김남주 시인의 시 '노래'가 새겨져 있는 중앙석과 그 좌우에 대나무를 형상화한 다섯 개의 돌기둥, 뒤편에는 세 그루의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앞쪽 오른쪽에는 시인이 무언가를 듣는 듯한 모습의 흉상으로 구성되어있다. 공원법상 시비가 세워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포함시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건립되었다고 한다. 시비 제작에는 화가 홍성담씨, 소설가 서해성씨 화가 홍성민씨, 건축가 박동준씨 등이 참가하였다.

소설가 서해성씨는 시비(청송녹죽비) 설명에서 '시비의 주제는 <소리>이며 청송녹죽비의 의미는 소나무와 대나무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를 듣고 있는 김남주 시인의 모습, 즉 그가 언제나 우리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하였다.

원래 김남주 시인하면 혁명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 시비에서는 서정적인 분위기가 풍겨나온다. 그 이유는 이 시비는 김남주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현재의 우리들을 위한 시비로 현재진행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이다. 시비에 형상화한 대나무는 김남주 시인의 생가 뒤편에 있는 것으로 시인이 태어날 때 처음 들었을 소리라고 생각한다. 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소리는 7.80년대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시인과 동시대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목표나 모습이며 바로 우리의 얼굴인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시인이 무언가를 듣는 듯한 흉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3. 광주 518 구묘역

망월동 구묘지는 5·18민중항쟁 당시 산화한 영령들이 묻혔던 곳으로 '망월동 묘지'라 불려왔다. 당시 가족과 친지들은 항쟁 와중에서 공포와 분노에 떨며 처참하게 훼손된 주검을 손수레에 싣고 와 이곳에 묻었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5월 27일 도청 함락 때 희생된 주검은 청소차에 실려와 묻혔다. 그 뒤 이곳이 '민주성지'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게 되자 군사집단은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고 협박을 일삼으며 묘를 파내게 하는 등 묘지자체를 없애려 획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5월 가족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매년 5월이면 5·18구묘지는 전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구심역할을 해왔다.

1994년부터 묘지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 새로운 5·18묘지가 완성되자 이곳에 묻혔던 영령들은 치욕의 17년을 뒤로 하고 새묘역으로 이장되어 비로소 편안히 눈을 감게 되었다. 80년 이후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다 산화하신 김남주, 이한열, 강경대 등 민주열사들과 노동열사들이 안장되어 있는 민주성지이다. 여기 구묘지는 당시의 참상을 처절하게 안고 있는 곳인 데다 그 동안 국내외 참배객들이 수없이 다녀간 곳이므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묘지 입구에는 전두환이 쿠데타 이후 담양을 다녀가면서 세운 비석을 통째로 뜯어다가 땅바닥에 묻어 놓았다.

<4조 윤선도>

1. 윤선도의 생애

20051115 박 나 영

조선시대 문인으로서 우리의 고전시가, 특히 시조에서 정채로운 경지를 이룩하였던 윤선도의 자(字)는 약이(約而), 호(號)는 고산(孤山) 또는 해옹(海翁)이다. 그는 1587(선조20)년 6월 21일 지금의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인 한성부 연화방에서 해남 윤씨의 명문, 유심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종가에 혈통을 이을 이가 없어 그가 8세 (선조27年)가 되던 해에 큰아버지인 관찰공(觀察公) 유기(惟幾)의 양자로 들어가 해남 윤씨의 대를 잇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글 읽기에 열중하던 그는 14세(선조33年) 때부터 한시 작품을 남기기 시작했으며 17세(선조36年)때에는 부인 남원 윤씨를 맞이하였고 같은 해에 진사초시에 합격하였다.

윤선도의 일생에 있어 30세(광해8年)는 인생의 큰 전환기에 해당된다. 그는 강직한 성품으로 광해군에게 병진소¹⁾를 올려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려 했는데 끝내는 유배생활에 이르게 된다. 37세(인조1年)때 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나고 그가 42세(인조6年)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벼슬활동을 하게 되었다.

윤선도가 51세 때 병자호란이 일어났는데 그는 의병을 이끌고, 피신해 있는 봉림대군 등 왕자들을 구하고자 해로로 강화 가까이까지 갔다. 그러나 강화는 이미 함락되어 왕자들이 청나라 호군에게 잡혀갔다는 소문을 듣고 회선 하던 중 인조가 굴욕적인 성하지맹²⁾을 맺었다는 소식을 접하곤 울분과 치욕을 이기지 못하고 평생을 은신하고자 탐라(지금의 제주)로 남하하던 중 보길도를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은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윤선도는 강직하고 곧은 성품과 본연의 뜻과 맞지 않는 정치 때문에 유배와 복직 그리고 은거생활을 반복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그는 좌절하기보다는 자연을 어머니의 품과 같이 여기고 때로는 벗으로 여기며 강호자연에 몰입했다.

1671년(현종12年) 6월11일 윤선도는 85세를 일기로 자신이 거쳐하던 부용동 낙서재(보길도)에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

<고산윤선도선생 시보(詩譜)>

1587년 6월 21일 한성동부 연화방에서 태어나다

1618년 경원(慶源)배소에서 견회요 5수와 우후요 1수를 짓다

1628년 봉림(鳳林) 인평(麟平) 양대군의 사부가 되다

1637년 병자란 때 천리근왕(千里勤王)했으나 강화했음을 듣고 회선하여 부용동에 낙서재를 짓고 여생을 보내다

1640년 수정동에서 금채동기를 짓다

1642년 금채동에서 산중신곡을 지었으니 오우가 6수 만흥 6수 조무요 1수 하우요 2수 일모요 1수 야심요 1수 기세탄 1수이다

1645년 금채동에서 산중속신곡 2수 야심사 춘효음 고금가 1수 중반금 1수 초연곡 2수 파연곡 2수를

1) 1616 (광해군8年)에 올린 소, 정치의 권세가 아래로 옮겨감으로써 임금의 형세가 위태롭게 되고 민심과 풍속이 어그러졌으며 인재등용이 불공평하고, 과거에 부정이 있으니 먼저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이첨을 베고 다음으로 임금을 배반하고 나라를 저버린 유희분과 박승중 등의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

2) 성 아래에서 맹세한다는 뜻으로, 굴욕적인 항복이나 치욕적인 강화를 비유한 말.

짓다

1651년 부용동에서 어부사시사 40수 어부가여음 1수를 짓다

1652년 승정원 승지를 사임하고 양주 고산촌(孤山村)에서 몽천요 3수를 짓다

1661년 삼수(三水)배소에서 서회문(敘懷文)을 짓다

1671년 6월 11일 향년 85세로 낙서재에서 역책(易 竹+責, 학식이 높은 사람의 죽음)하다

1690년 해남 오현사(五賢祀)에 배향하다

II. 작품세계

20061112 김 형 규

고산 윤선도의 문학은 자연을 소재로 했거나 자연 경치의 아름다움을 노래했거나, 자연을 통하여 어떤 교훈적인 의미를 발견해 내는 등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자연미를 발견하고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하는 것이 조선시대 문학의 커다란 흐름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고산 윤선도의 일생은 출사와 유배와 은둔생활로 이어졌고 이 세 가지 생활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 특히 고산 윤선도에게 있어서는 출사의 기간보다는 유배와 은둔생활의 기간이 훨씬 길었고 이러한 생활환경이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했고, 드디어는 물(水), 바위(石), 소나무(松), 대나무(竹), 달(月)을 벗 삼아 살겠다고 노래하게 했던 것이다.

윤선도의 시조 중에서 <오우가>, <어부사시사>를 보면 윤선도가 왜 이런 시조를 썼는지 윤선도의 자연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선도의 자연관을 보면 자연을 풍류, 벗, 물아일체 이렇게 보고 있다. 고산은 눈을 뜨면 대하는 것이 자연이었기에 그는 자연을 완상(玩賞)하면서 계절을 느끼며 그 느낌을 시조로 표현하였기에 그의 시조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자연을 풍류와 벗을 떠나서 아예 자신과 하나가 되는 발전적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그가 강호를 좋아하기도 하고, 자의든, 타의든 자연 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았음에도 이유가 될 것이다.

윤선도의 작품 중에서는 자연관 말고도 연군지정, 우국제민 같은 유교사상도 포함되어 있다. 연군지정은 윤선도의 국문시가 대부분의 형성 동인이 되고 있다. 초기의 <견회요>, <우후요>, 후기의 <몽천요>는 물론이고 자연을 노래하고 있는 <어부사시사>에 이르기까지 연군지정의 바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군지정은 윤선도만의 정신적 지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조선조 사대부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될 것이지만, 윤선도의 연군지정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연군지정을 말하는 거라면 남여의 애정, 특히 부부간의 애정에 의탁하여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연군지정인데 윤선도의 작품들에서는 고집스럽게도 여성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남성의 목소리를 고집하는 남성 편향적임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윤선도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정감보다는 이념이 강화되어 있는데 이 또한 남성편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윤선도의 작품에는 몇 가지 특색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고시조는 대개 시제 없이 지어진 것이 많은데, 윤선도의 경우는 이와 달리 모든 작품에 작가적 안목을 보인 주체적 제목이 붙어 있다. 이는 대부분 소주제의 시형을 바탕으로 하여 대주제의 시로 종합하는 연작상태의 구성을 취한 것이 특색이다. <어부사시사>가 가사적 장형으로 확대된 까닭은 이러한 연작성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시조를 흔히 생활과 밀착되었다느니, 또는 일상적이고 평범함 속에 아름다움을 찾는 경지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윤선도의 작가적 능력과 그의 문학성에 감명하며, 국문학사상 그의 위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특히 근 70년 동안에 끊임없이 시작을 계속했다는 점도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이유이다.

Ⅲ. <어부사시사>의 이해

20051116 박 영 은

원문 :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春詞 四

우는 거시 벉구기가 푸른 거시 버들 숲가
이어라 이어라
漁어村촌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쫘지窺국窺총 쫘지窺국窺총 於어思사臥와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느다

번역 : 우는 것이 빼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 숲인가.
노 저어라 노 저어라
어촌의 두어 집이 안개 속에 들락날락하는구나.
찌끄덩 찌끄덩 어여차
맑고 깊은 못(물)에 온갖 고기 뛰노는구나.

해설 :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1651(효종 2)년 그의 나이 65세 이후 전남 해남(지금은 완도군) 보길도 부용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각각 10수씩 읊은 40수와 어부사여음 1수로 모두 41수의 연시조이다. 어부가는 고려 때부터 전해오는 어부단가 10장과 어부장가 12장(장가는 고려말 조선초의 공부(孔俯)가 전해오는 한시 구절을 활용하여 지었고 『악장가사』에 실려 전해 옴)이 있었다. 명종 때 이현보(李賢輔)가 단가는 5장의 시조로(청구영언에 실려 전해 옴), 장가는 9장의 한시 구절에 우리말 토를 단 것으로 축약하였다. 이 것을 다시 윤선도가 순 우리말의 멋과 맛을 살려 <어부사시사>로 완성하였다. <어부사시사>는 그 동안 전해 오는 어부가 계열의 노래를 가장 문학적으로 승화시킨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초장 : 우는 것이 빼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드나무인가라는 표현은 육지에서 멀리 바다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빼꾸기의 소리와 버드나무의 모습을 명확하게 가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새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확실하게는 알 수 없고 나무가 보이는 듯싶은데 정확히는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바다의 가운데에 시적 자아는 떠 있다.

중장 : 두어 집으로 보인다고 안개 속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말한다. 그러면서도 물 한가운데에 떠 있는 배는 고요히 움직이고 있다. 안개 속으로 나타나는 집이 두 집이었다가 세 집이었다가 하는 것은 배가 나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종장 : 바다 한 가운데에서 약동하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이는 그대로 표현하였다. 바야흐로 봄의 계절인 것이다.

순 우리말을 쉽게 구사하였음에도 그 뜻은 깊은 맛을 내면서 적확하게 그려내었다. 윤선도는 어부가의 전통적 표현방식을 살리면서도 관념적 표현에서 벗어나 현장감 있게 형상화시켰다. 자연에서의 삶을 체험하면서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고서는 느낄 수가 없는, 그야말로 자연 속에 깊이 침잠하여 몰아일체가 된 사람만이 써낼 수 있는 작품이다.

IV. 고산과 세연정의 유흥

20011147 이 상 구

세연정(洗然亭)은 부용동 원림(芙蓉洞 園林)의 입구가 되는 곳으로, 고산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그는 여기에 자신의 개성적인 풍류와 과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원(造園)의 안목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하였다. 대를 쌓고, 정자를 짓고, 다시 인공의 연못을 만들고, 갖가지 꽃과 나무를 심어서 훌륭한 원림을 형성하였다. 주로 계곡의 공간을 조화 있게 활용한 조원이므로 이러한 원림을 계원(溪苑)이라고도 한다. 이 곳의 주요 건물이 세연정이다.

세연정은 계담과 정지 사이에 위치하여 이곳에 오르면 사방 수석경(水石景)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건너다 보이는 남쪽산 중턱에는 옥소대(玉簫臺)가 있다. 이 암석에서 춤을 추면 그림자가 계담에 떨어져 비치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풍악을 연주케 하고 피리를 불면 세연정에서 풍류를 즐기는 주인공과 교감할 수 있으므로 그 석대(石臺)를 옥소대라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고산의 유적지를 답사하고 쓴 윤위의 『보길도지』에는 세연정의 풍류가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다..

일기가 청화(淸和)하면 반드시 세연정으로 향하되, 곡수 뒷산 기슭을 거쳐 정성암(淸成庵)에서 쉬곤했다. 학관(高山의 5남)의 어머니는 오찬을 갖추어 소거(小車)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정자에 당도하면 자제들은 시립(侍立)하고, 기희(妓嬭)들이 모시는 가운데 못 중앙에 작은 배를 띄웠다. 그리고 남자아이에게 채색옷을 입혀 배를 일령이며 돌게 하고, 공이 지은 어부수조(魚父水調)등의 가사로 완만한 음절에 따라 노래를 부르게 했다. 당 위에서는 관현악을 연주하게 했으며, 여러 명에게 동·서대에서 춤을 추게 하고 혹은 긴 소매 차림으로 옥소암(玉簫岩)에서 춤을 추게도 했다. 이렇게 너울너울 춤추는 것은 음절에 맞았거니와 그 몸놀림을 못 속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칠암에서 낚시를 드리우기도 하고 동·서도(東西島)에서 연밥을 따기도 하다가 해가 저물어서야 무민당에 돌아왔다. 그 후에는 촛불을 밝히고 방놀이를 했다. 이러한 일과는 공이 아프거나 걱정할 일이 없으면 거른 적이 없었다 한다. 이는 “하루도 음악이 없으면 성정(性情)을 수양하여 세간의 걱정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 든 윤위의 보길도지에 나타난 세연정은 옛 선비들이 강호에 은거하여 자연과 시주(詩酒)의 풍류를 즐기면서 경영하던 누정개념(樓亭概念)의 건물이다.

누정에 따라 그 기능은 다양하였지만 이곳 세연지의 누정은 오고가는 선비들과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추측된다. 자제를 비롯하여 후학들을 가르치며 학문하던 낙서재(樂書齋) 지역과 선경을 그리며 탈속하여 신선처럼 지내던 동천석실 지역과는 구별되는 대표적인 누정 공간이 바로 이 세연정 지역이다.

『보길도지』에 의하면 고산은 섬 속의 여러 형상을 사람에게 비유하여 품평하되, ‘석실은 신선 같은 사람에게 비의(比擬)되어 마땅히 제일 으뜸이고, 세연정은 변화하면서도 청정(淸整)함을 겸하였으니 재상의 재능이요, 수대(水臺)는 단아하고 고결하여 스스로를 지키는 자나 다름이 없다’고 한 것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세연정 지역의 특징을 말한 진술이라 하겠다.

V. 보길도의 유적들

20061113 문 솔 빈

1. 낙서재(樂書齋)

세연정에서 걸어서 40분 정도 부용동 안으로 들어가면 높이 솟은 격자봉 아래에 낙서재터가 있다. 세연정이 놀이의 공간이었다면 낙서재 부근은 강학하고 독서하면서 즐거움을 얻고 은둔하고자 하는 선비의 생활공간이었다. 윤선도는 낙서재터 뒤편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소은병이라 불렀다. 소은병이란 원래 주자가 경영한 중국 무이산의 대은봉 건너편에 있는 봉우리 이름으로, 윤선도는 산속에 은거하며 학문에 몰두한 주자의 행적을 따른다는 뜻에서 자기 거처 뒤의 바위에 이 이름을 붙였던 것이다. 소은병 바위 위에는 삼각형의 홈이 크게 파여 있어서 빗물이 고이면 바위벽을 타고 흘러내리게 되어 있다.

지금은 땅에 묻혔지만 예전에는 낙서재 앞에 거북바위가 있어서 저녁이면 윤선도가 거기에 앉아 달을 즐겼다고 전해진다. 윤선도는 67세에 거북바위 남쪽에 무민당을 짓고 못을 판 후 연꽃을 심었으며 낙서재와 무민당 사이에 각각 한 칸짜리 동와와 서와를 지었다. 82세 때는 아들 학관을 시켜서 낙서재 동쪽 계천가에 곡수당을 짓고 역시 연못을 만들었다.

곡수당 옆으로 흐르는 계천은 물 흐르는 소리가 옥이 구르는 듯하다고 해서 낭음계라고 불렀는데, 이로 인해 낙서재와 무민당, 곡수당 등이 있는 주변을 통틀어 낭음계라 부르기도 한다.

2. 동천석실(洞天石室)

지금은 1993년에 복원된 네모 반듯한 정각이 세워져 있다. 이곳에 오르면 부용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주변의 산자락이 낙서재터를 둘러 연꽃잎처럼 피어나 있어서 부용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실감하게 된다. 동천석실이라는 이름은 신선이 사는 곳을 동천복지라고 부르는 데서 연유했다.

동천석실로 올라가는 급경사 아래 오솔길 가에는 바위 틈에 자그마한 세모꼴 연못이 있다. 연못 아래쪽 바위 밑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나가며, 오솔길 건너편에도 다른 연못이 있었던지 석축으로 둘러 놓은 흔적이 있다. 연못 위쪽에 드러난 널따란 암반 귀퉁이에는 딱 한 사람이 걸어갈 만한 폭으로 계단이 패어있다. 연못의 배수구가 뚫린 바위는 그 돌계단으로 올라가는 통로이기도 한데, 윤선도는 여기에 희황교라는 이름을 붙였다. 희황은 중국의 황제 복희씨를 말한다.

3. 곡수당 (曲水堂)

곡수당은 고산 윤선도의 자제 학관이 기거했던 곳이다. 지금은 논밭으로 변해버려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세연정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자였다고 한다. 곡수(曲水)를 중심으로 초당(草堂), 석정(石井), 석가산(石假山), 평대(坪臺), 연지(蓮池), 다리, 화계(花階)등이 좌우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다.바로 위에 낙서재 터가 남아 있다.

Ⅵ. 이해

20061114 박 나 라

1642년에 금채동에서 지은 것이 <산중신곡>이다. 성산 현감에서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있다가 병자호란에 의병으로 출동하였으나, 화의가 정한 후 왕의 환도에 인사하지 않았다 하여 영덕으로 귀양 갔다가 풀려나온 뒤의 심정이 <산중신곡>에 나타나 있다. <산중신곡> 가운데는 대피소에서 정계 복귀를 희망하는 마음을 자연에 의탁하여 나타낸 작품이 많다. <오우가>는 <산중신곡>에 있는 첫 번째 작품이다.

<오우가> 제1수에서는 자신과 더불어 늘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벗 다섯을 소개한다. 먼저 수석과 송죽을 소개한 다음 동산에 오른 달은 “괴더욱 반갑고야”라고 강조한다. 다섯 벗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달이라고 볼 수 있다.

<오우가> 제2수에서는 물의 청결성과 항상성을 노래했다. 구름빛은 청결성을 가졌으나 혼탁성도 있고, 바람 소리도 청결성이 있으나 일시성이 있을 뿐이다. 청결성과 항상성을 동시에 가진 물이 친구라 하였으니 물이 가진 이 두가지 성질을 벗 삼는 것이다.

<오우가> 제3수에서는 피면서 쉬이 지는 꽃, 푸르른 듯하다가 어느새 누렇게 되는 풀, 이들을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여기에 비해, 바위는 변하지 않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 바위의 항상성을 벗 삼는 것이다.

<오우가> 제4수에서는 꽃은 더우면 피고 잎은 추우면 진다. 이들은 형세에 따라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은 응변성이다. 그러나 술은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간다. 눈서리를 아랑곳파지 않는다. 이것은 의연성이다. 이런 의연성은 구천에 뿌리 돌음, 곧 강직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소나무의 의연성과 강직성을 벗하다는 뜻이다.

<오우가> 제5수에서는 나무는 나무라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풀은 풀이라는 특성이 분명하다. 이런 성격은 편벽성이다. 그러나 대나무는 나무도 풀도 아닌 중용성을 가진다. 또 곧은 강직성과 속이 비어서 통달성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사시에 푸르니 항상성을 가졌다. 대나무에서 중용성, 강직성, 통달성이란 관념을 추상하여 그것을 벗 삼는다.

<오우가> 제6수에서는 달은 높이 떠서 고고성을 가지고 있다. 만물을 다 비추어 주어 군자의 덕을 온 세계에 베푸는 겸선성을 가졌다. 하늘이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그 뜻을 보이듯 달 또한 침묵성을 가지고 있다. 달에서 추상된 고고성, 겸선성, 침묵성은 군자가 가져야할 궁극적 목표가 되므로 윤 선도는 이를 가장 중요시 했다.

<오우가>의 자연에서 추상된 관념은 유가의 윤리이다. 윤선도는 다석 개의 자연물을 ‘벗’으로 삼았다. 벗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거리를 가까이 유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벗이란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라고 하는 맹자의 사상적 영향 아래 이루어졌다.

<오우가>에서 동물이 등장하지 않고 무생물, 식물만 등장한 것은 윤선도가 추구한 윤리가 외적 윤리가 아니라 내적 윤리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윤선도는 정치적으로 패배했다. 정치적 패배는 왕과의 관계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개인의 인격 완성이란 내적 윤리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이다. 이런 내적 윤리는 연군 충성 정계복귀에 대한 희망 나타난 외적 윤리의 추구와는 양면성을 나타내고 있다.

- 윤선도 작품집 (윤성근)

Ⅶ. 전남의 윤선도 유적지

20061115 박 정 성

1. 해남 녹우당³⁾

1968년 12월 9일 사적 제167호로 지정되었다. 면적 6만 6000㎡이다.

집채는 서향, 대문은 남향, 안채에는 3칸의 대청과 대청 북단에 서향한 2칸의 마루방이 있고, 마루방 서쪽에 작은 온돌방이 2칸 이어져 안방을 이루고, 그 끝에 큰 부엌이 붙어 있다. 사랑채는 안채 앞에 있으며, 서향하여 남단에 2칸의 대청이 있고, 그 옆에 2칸의 온돌방이 이어지며, 온돌방 옆에 서쪽으로 돌출한 작은 온돌방이 있다. 안채 뒤쪽에 큰 대밭이 이어지고, 남동쪽 귀퉁이에 선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으며, 외원(外垣) 바깥에 윤선도를 모신 고산사당(孤山祠堂)과 증조인 윤효정(尹孝貞)을 모신 어초은(漁樵隱) 사당이 있다.

녹우당은 조선조의 문신인 윤선도의 고택이다. 소재지는 해남이며 여타 우리의 조상들의 건축과 같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많은 곳에서 녹우당을 녹색의 정원이라 지칭하며 찬사를 보내는데 이러한 찬사는 덕음산의 모습과 장원 주위의 숲들로 인해 녹음이 더욱 짙어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2. 해남 금쇄동

금쇄동은 윤선도가 직접 이름을 붙인 장소이자, 윤선도가 산중신곡⁴⁾을 지은 장소이다. 또한 현재 윤선도의 묘가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윤선도의 묘는 대단한 명당이라 한다. 관심있는 사람은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이다.) 특히 문학사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윤선도가 풍수설의 대가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로 배웠다. 이에 윤선도의 묘에 얽힌 재미있는 전설을 실어보았다.

“이의신이 고산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밤중이면 몰래 말을 타고 집을 빠져나가 새벽녘이면 슬그머니 돌아오곤 했다. 고산은 이의신이 명당을 찾았음을 짐작하고 어느 날 그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해 일찍 잠에 빠지게 했다. 잠이 든 것을 확인한 고산은 평소 이의신이 타던 말을 앞세우고 집을 나섰다. 말은 밤중이면 언제나 가곤 하던 그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어느 지점에 멈추었다. 자리를 살펴보니 과연 천하의 명당이었다. 고산은 주변에서 썩은 나무막대 하나를 찾아 그 자리에 묻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고산은 이의신에게 자신이 잡아놓은 자리가 하나 있으니 한번 봐달라고 했다. 이의신이 따라가 본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이 잡아놓은 자리였다. 이의신이 ‘명당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면서 고산에게 양보하였다.”⁵⁾ (약간의 픽션이 섞여있긴 하지만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이의신이 양보한 것 같다.)

해남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세연정, 세연지, 낙서재터, 곡수당터, 동천석실)

보길도는 윤선도 유적지의 핵심이 되는 장소이다. 7차례 동안 총 13년을 이 곳에서 지냈다고 알려져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이곳은 윤선도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또한 이곳을 통해 그의 건축가적인 안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보길도 윤선도 유적지에 대한 설명 조의 다른 발표자와 검침으로 제외하였습니다.)

3) 네이버 백과사전

4) 만흥(漫興)》 6수, 《조무요(朝霧謠)》 1수, 《하우요(夏雨謠)》 2수, 《일모요(日暮謠)》 1수, 《야심요(夜深謠)》 1수, 《기세탄(饑歲歎)》 1수, 《오우가(五友歌)》 6수, 《고금영(古琴詠)》 1수로 되어 있다.

5) 출처 네이버 도루묵님의 블로그

고정희의 생애

20051117 박 은 희

1948년 전남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에서 고양동씨의 5남3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본명은 고성애(高聖愛)이다.

1967년 19세의 나이로 『새농민』지에 장만영 시인의 호평과 함께 작품이 실렸다. 1968년 20세의 나이로 광주에 있는 ‘현대실’에서 개인 시화전을 가졌다. 1969년 21세 때는 목포지역의 젊은 문인들로 이루어진 ‘흑조’동인으로 활동하였고, 5년 뒤인 1974년에는 광주 YMCA 프로그램부 간사로 있었다. 그 다음해에 박남수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시학』에서 「연가」와 「부활과 그 이후」를 발표하며 등단하였다.

1979년 31세 때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였고, 허형만, 김준태, 장효문, 송수권, 국효문 등과 ‘목요시’동인으로 활동하였다. 이때 첫 시집 『누가 홀로 숨들을 받고 있는가』를 간행하였고, 대구에 거주하면서 경북대에서 김춘수 시인의 강의를 청강하였다.

1981년에 제 2시집 『실락원 기행』을 간행하였고, 2년 뒤에 제 3시집 『초혼제』와 제 4시집 『이 시대의 아벨』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초혼제』로는 대한민국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였다. 그 다음해에 ‘또 하나의 문화’ 창간하고 동인활동을 하였다.

1986년 1월부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편집부장으로 일했고, 제5시집 『눈물꽃』을 간행하였다. 그 다음해에 ‘또 하나의 문화’동인지인 『여성해방의 문학』 3호 발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제6시집 『지리산의 봄』을 간행하였다.

1988년 40세의 나이로 한 달반 동안 유럽여행을 했고, 6월부터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을 역임했다. 1989년 제 7시집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를 간행하였고, 2년 뒤에 제8시집 『광주의 눈물비』를 간행하였다. 8월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 종교음악연구소 초청으로 아시아의 시인 및 작곡가들이 모여 1년간 벌인 ‘탈식민지 시와 음악 워크숍’에 참여했다. 필리핀 체류 중 「밥과 자본주의」 「외경읽기」 연작시를 썼다. 그리고 제 9시집 『여성해방 출사표』를 간행하였다.

1991년 43세 때 마지막 시집인 『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간행하였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사』를 편집 제작하였다. 6월 9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실족하여 작고하였다.

고정희의 가슴속은 항상 불길을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강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어 중간 중간에 쉼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으름과 비겁성의 틈바구니를 한없이 파고 들어와 버린다. 그가 좋아하는 모습은 항상 뒷모습이었다. 사람의 참모습은 뒤에서 그려진다는 그의 말은 지금도 생생하며, 번뜩이는 눈길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도 사람들의 떠나는 모습에서 찾고 있었다. 이러한 그녀의 불길은 부당한 일에 대한 절절한 분노를 담고 있으며 그 분노가 아낌없이 시 속에 퍼부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사물에 대한 애정, 아니 삶에 대한 열정을 찾으려는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는 수도승이었다.

-조오라(‘발문’에서)

I. 고정희의 작품세계

20061116 박 지 운

시집으로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1979), <실락원 기행>(1981), <초혼제>(1983), <이 시대의 아벨>(1983), <눈물꽃>(1986), <지리산의 봄>(1987),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1989), <여성해방 출사표>(1990), <광주의 눈물비>(1990), <아름다운 사람 하나>(1991)와 유고시집으로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1992)가 있다. 시집 가운데 <초혼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남도가락과 씻김굿 형식을 빌어 민중의 아픔을 위로한 장시집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강한 의지와 생명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노래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43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한 그녀의 기일이면 생가가 있는 해남군 삼산면 송정리는 ‘고정희 기념관’을 보려는 문학 지망생들과 뒷산에 자리한 묘에 국화를 마치려는 그녀의 친구들로 분주하다고 한다. 짧았던 고정희의 삶이 치열했던 만큼 사후 그녀에 대한 관심도 치열한 듯하다.

고정희는 정말 시인다운 시인이었다.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1975년 27살에 한국 신학대학에 입학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이후 <지리산의 봄>, <아름다운 사람 하나> 등 10여권의 시집으로 시대의 아픔을 힘차게 깨안으면서 1983년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평론가들은 하나같이 그녀의 시를 ‘날카로운 투시와 비판’, ‘탄탄한 리듬과 힘찬 구성’이라고 극찬했다. 전라도의 질펀한 황토 흙에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역사적 물줄기를 담기도 하고 사랑.눈물.삶 같은 잔잔한 감동도 담아냈다.

고정희의 시세계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지상실현을 꿈꾸는 희망찬 노래에서부터 민족민중문학에 대한 치열한 모색, 그리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적 작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탐구와 정열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그 모든 시에서 생명에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넘쳐난다. 고정희의 이와 같은 치열한 역사의식과 탐구정신은 5. 18 광주 항쟁을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즉 그녀는 전통적인 남도 가락과 씻김굿 형식을 빌어와 민중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다져지는 저항의 힘을 힘차게 노래하였던 것이다. 현실사회의 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글쓰기의 혁명은 이처럼 고정희에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두 개의 중요한 삶의 지향점이었다. 이토록 정직하게, 즐기게, 자유를 향한 이념을 불태우며 민족, 민중, 그리고 여성의 해방을 위해 노력한 고정희의 문학가로서, 여성운동가로서의 실천은 한국 문학사에 대단히 중요한 귀감이 될 것이 틀림없다.

- 참고 사이트 : <http://www.gohjunghee.net>

II. <상한 영혼을 위하여>의 이해

20041180 진 회 선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 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상한 영혼을 위하여> 전문

<작품의 이해>

1연 : 절망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려는 극복의지가 담겨 있다.

하늘 - 세속의 인간적 잣대를 넘어서 공평한 하느님의 나라.

뿌리 - 세속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자기 정체성의 세계.

2연 :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다.

‘꽃은 핀다는 것’, ‘개울은 흐른다는 것’, ‘등불은

켜진다는 것’ 이런 것을 믿고 있기에 “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다. 가자고 하는 곳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인간 해방이 이룩된 세상이다.

3연 : 인간사를 넘어서 힘이 움직이고 있고, 세상은 어둠과 상처투성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잠시 스쳐가는 풍경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이 시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와 함께 읽어도 서로 공감하기 쉬운 작품이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직접 대면하고 고통을 수용하여 더욱 값진 삶을 살고자 하는 시인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고통을 반드시 부정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를 통해 더욱 강인해지고자 하는 시인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 시는 고통을 노래한 다른 시들과 구분된다.

<핵심단어>

상한 갈대, 부평초 :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화자.

새순, 개울, 등불 : 삶에 대한 희망.

벌판 : 고통을 수용함으로써 더욱 견고해지는 삶의 공간.

- 참고문헌 : 정효구, 『시 읽는 기쁨』

(작가정신, 2001), pp.159-172.

III. 고정희의 문학관

20051118 박 정 은

시인 고정희는 해남군 산삼면에서 출생하여 독신녀로 치열한 현실의식과 여성해방주의, 기독교정신과 지리산과 그리고 해남을 떠올리게 하는 시인이었다. 부당한 현실에 분노하고 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며 시를 쓰던 시인은 우아하고 고상한 여류문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의 시작품들을 통해서 그가 남긴 10권의 시집에는 시대와 사회와 삶에 대한 성찰과 고뇌뿐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아가 새벽을 깨우려는 의지로 충만했다. 운동가의 강인함과 시인의 열정 및 섬세함을 동시에 갖춘 고정희는 훈련된 지도자의 역량으로 <여성신문> 초대 주간을 맡아 명실상부한 여성주의적 대안 언론의 초석을 튼튼히 다진다.

고정희를 한국문학사, 여성문학사의 한 중요한 모범으로 기리고자 할 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인으로서 고정희가 이룩한 업적이다. 고정희는 한국에서 페미니즘 문학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고 그 뛰어난 실천적 전범을 보였던 작가였다. 한국문학사에서 고정희 이전에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역사성’ 그리고 ‘여성과 사회가 맺는 관계방식’을 특별한 문학적 가치로 강조하고 이론화한 작가는 아무도 없었다. 고정희가 없었다면 한국문학사에 페미니즘이라는 중요한 인식의 장은 훨씬 더 늦게 열렸을 것이다.

시인의 시혼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정적이었음은 일단 다작의 시집들과 각 시집들과 각 시집의 독자성에서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10권의 시집에는 시대와 사회와 삶에 대한 성찰과 고뇌 뿐 아니라 어둠을 뚫고 나아가 새벽을 깨우려는 의지로 충만해 있다.

최초의 시집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평민사, 1979)를 출간한 것을 비롯하여 10권 정도 되는데 1979년부터 1991년까지 1-2년 사이에 꾸준히 한 권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유고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창작과 비평사, 1992)와 한국대표시인 100인 선집 중 90번째 시선 「땀사골에서 쓴 편지」(미래사, 1991)가 있다.

고정희는 놀랄 만한 다산성 시인이면서도 결코 어느 하나 함부로 창작해 내지는 않았다고 평가된다. 오직 ‘시를 쓰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은 그에게 시는 존재의 결과이자 이유였고 구원이었다.

그의 삶이 남다른 열정과 순수로 점철된 탁월한 것이었음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평가이다. 그는 자신과 주변 사람,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선명히 파악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인생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한 사람 중의 하나이며 시와 삶이 거의 일치한 보기 드문 시인이었다. 기독교 신문사, 크리스찬 아카데미 출판간사, 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 <여성신문> 초대 편집주간을 거쳐 여성문화운동 동인<또 하나의 문화>에서 열심히 활동하였는데 이런 활동들은 그의 시를 ‘정한(情恨)’이나 ‘슬픔’ 등과 는 거리가 먼, 활기와 강인함으로 가득 차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시는 사유나 관념을 통해서 창작된 것이 아니고 현실 생활을 통해서 창작되었고 그래서 늘 살아 움직여 역동성과 다양성을 지녔던 것이다.

그 생애의 치열함에는 수유리 종교의식과 광주의 역사의식 그리고 여성의식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새벽 다섯 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를 쓰거나 묵상에 잠기는 생활을 했던 그는 분명 시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한 시인이었다.

Ⅳ. 고정희 관련 유적

20061117 변 현 지

① 해남 생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운동가로 알려진 삼산면 송정리 출신의 고정희 시인으로 인하여 ‘또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매년 고정희 시인의 기일을 맞아 고정희 시인이 묻혀있는 이곳 땅끝 해남을 찾아오고 있다.

② 광주문예회관 시비



광주문예회관 원형무대 앞에는 고정희 시인의 시비 <상한 영혼을 위하여>가 있다.

검은 돌에 하얀 글씨로 또박또박 각인된 이 시를 어느 상심한 40대 실직자에게 읽혀져 그래서 희망을 꺾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고정희 시인은 살아있는 우리보다 낫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슬픔의 강을 헤매고 있었을 그 실직자의 가슴에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는 말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고정희는 힘 있는 사람이다.

③ 해남 묘소



생가 뒤의 저수지 옆 언덕에 묻혀 있다.

< 6조 - 정약용 >

1. 정약용의 생애

20037170 함 정 석

다산은 1762년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당시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1730-1792)이며, 어머니는 해남윤씨로 조선시대 유명한 서화가인 공제 윤두서의 손녀였다. 다산의 아명은 귀농, 자는 미용, 송보이고, 호는 사암, 열수, 다산, 자하도인, 문암일인 등이며 당호는 여유당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 7세때 지은 '산'이라는 시가 지금까지 이를 입증해 준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네 (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

1777년 다산은 자신의 학문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스승을 만나게 되었으니 그가 실학의 선구자 성호 이익이다. 다산이 두 살 되던 해에 성호가 세상을 떠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산은 성호의 길을 접하고 학문을 굳히게 되었다.

다산은 22세 때(1783)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이때 당시의 임금인 정조의 눈에 띄어 인정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학문 때문이었다. 다산은 성균관 생활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시험을 통해 정조의 총애를 받았다.

28세 때 1789년 문과에 급제하여 본격적인 벼슬살이를 시작하였다. 그는 첫 벼슬인 희릉직장을 비롯하여 사간원정언, 사헌부지평을 거쳤다. 이즈음 그는 '성설'과 '기중도설'을 지어 수원성을 쌓는데 유형거와 거중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이로써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서는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암행어사로서 그는 전 연천 현감 김항직과 전 상양 군수 강명길의 폭정을 고발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책임과 관리의 의무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천주교와 만남도 그의 삶에 큰 비난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23세 때 천주교를 처음으로 접했다. 이후 그는 한때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심취하기도 하였으나 성균관에서 학업에 정진하느라고 곧 손을 떼었다. 그는 천주교 신앙과 서양과학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기도 하였으니 또한 갖은 시련과 좌절을 맞보기도 하였다.

정조가 서거하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다산의 생애 최대의 전환기를 맞는다. 소론과 남인 사이의 당쟁이 신유사옥이라는 천주교 탄압사건으로 비화하면서 다산은 천주교인으로 지목받아 유배형을 받게 된다. 이때 다산의 셋째형 정약중은 옥사하고 둘째형 정약전은 신지도로 다산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다. 곧 황사영의 백서사건이 일어나서 서울로 다시 불러와 조사를 받고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강진에서의 유배기간은 다산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지만 학문적으로는 매우 알찬 결실을 얻은 수확기였다. 5백여권에 달하는 그의 저서 대부분이 유배지에서 이루어졌으니 18년 동안에 걸친 강진 유배기는 저술 작업 기간이었다고 할 만하다. 특히 이 시기의 경제학과 더불어 다산사상의 도축을 이루는 경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제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으며, 이들 제자들은 또한 다산 저술작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유배지의 제자들로써 이청 · 황상 · 이강희 · 이기로 · 정수철 · 윤종문 등을 들 수 있다.

57세 되던 해 가을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다산은 저술을 계속하였다. 이때 미완으로 남아있던 목민심서를 완성하였으며 『흙흙신서』, 『아언각비』 등의 저작을 내놓았다. 또한 회갑을 맞이

해서는 자찬 묘지명을 지어 자신의 생애를 정리하기도 하였으며, 북한강을 유람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신작 · 김매순 · 홍석주 등과 교유하며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는 유배지에서 쇠약해진 심신을 추스리며 자신의 생애와 학문을 정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산은 고향으로 돌아온 지 18년 만에 75세의 일기로 숨을 거두었다. 자찬묘지명에서 다산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경계했다.

"내가 너의 착함을 기록했으니 여러 장이 되었도다. 너의 감춰진 사실을 죄다 기록했기에 이 이상의 기록이 없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사서육경을 안다라고 하였으나 그 실천한 바를 생각해보면 어찌 부끄럽지 않으랴. 너야 명예를 널리 퍼뜨리고 싶겠지만 그러나 찬양이야 할 게 없다. 몸소 실행하여 증명시켜 주어야만 널리 퍼지고 이름이 나게 된다. 너의 뜻 섞여 어지러운 것을 거두어들이고 너의 분별없이 함부로 날뛴을 그쳐서 부지런히 실천하기에 힘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다산학술문화재단에서 따옴)

II. 애절양(哀絶陽)의 이해

20051126 우 윤 지

1. 머리말.

애절양은 당시 군정의 문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삼정 가운데 군정(軍政)의 문란인, 죽은 부모에게 군역을 물리던 백골징포(白骨徵布)와 어린 아이에게까지 물리던 황구침정(黃口僉丁)의 폐단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생생하게 형상화했다.

2. 원문: 哀絶陽[애절양]

蘆田少婦哭聲長 哭向懸門號穹蒼 夫征不復尚可 有 自古未聞男絶陽

舅喪已縞兒未操 三代名簽在軍保 薄言往愬虎守閭 里正咆哮牛去早

磨刀入房血滿席 自恨生兒遭窘厄 蠶室淫刑豈有幸 閨閨去勢良亦憾

生生之理天所予 乾道成男坤道女 駟馬獷豕猶云悲 況乃生民恩繼序

豪家終歲奏管弦 粒米寸帛無所捐 均吾赤子何厚薄 客窓重誦鴟鴞篇

갈밭의 젊은 아녀자는 울음도 서럽구나

현문(縣門-관아의 문) 앞에 통곡하다 하늘보고 부르짖네.

전쟁터의 남편이 돌아오지 못한 일이야 있을 법한 일이지만

예로부터 사내가 제 양물을 잘랐단 소리 들어보지 못하였네.
 시아버지 삼년상은 벌써 지났고 갓난 아이 배냇물은 마르지도 않았는데
 이 집 삼대의 이름이 모두 군적에 실려 있네.
 관가에 가 억울한 사정 호소해도 범 같은 문지기 버티고 있어
 이정(里正 - 지금의 이장 직위)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의 소마저 끌어갔다네.
 남편이 식칼 갈아들고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선혈이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한탄하기를 "자식 낳은 죄로 곤액을 치른다"고 하네.
 장실 궁형이 또한 지나친 형벌이고
 민땅의 어린애 거세하던 풍속 실로 가엾은 일이구나.
 자식 낳고 사는 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린 이치인데
 하늘과 땅이 조화롭게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 것이네.
 말이나 돼지를 거세함도 가엾다 말하는데
 하물며 대를 잇는 사람에 있어서랴
 부자 집에서는 일년 내내 풍악 울리면서도
 이 자들은 한 톨의 쌀, 한 치 베로 세금 내는 법 없구나
 다 같은 백성인데 이처럼 불공평하니
 객창에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을 거듭거듭 읊노라

3. 해석.

애절양은 다산이 강진 유배기에 직접 견문한 사실을 시로 쓴 것이다. 군포를 둘러싼 지방관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던가는 『목민심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심하게는 배가 불룩한 것만 보고도 이름을 지으며, 여자를 남자로 바꾸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강아지 이름을 흑군안(軍案)에 기록하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개이며, 절굿공이의 이름이 흑관첩(官帖)에 나오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절굿공이이다.” 웃어야 할일인가 울어야 할일인가 어쩔건 삼정의 문란을 말할 때, 당시 일을 증명하는 어떤 통계 수치보다도 우리는 이 《애절양》 한 편을 통해 그 시대 백성의 절규를 실감으로 듣게 된다.

Ⅲ. 정약용의 자주적 문학과

20061119 손 진 희

다산의 학문은 경학에서 출발한다. 다산의 학문체계는 경학을 근본으로 하고, 경세학을 그 실현방법으로 보고 있다. 경학을 통해 수기(修己), 즉 자기의 인간됨의 완성을 위해 수양하고, 경세학으로 치인(治人), 즉 완성된 인격과 능력으로 천하와 국가를 경영(세상에 봉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유배시절 초기에 경학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다.

1. 정약용의 문학과.

- ① 주자 성리학 비판, 공자 정신으로 돌아가자.

다산은 『오학론』을 비판했다. 다산은 공자와 맹자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이는 결코 복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동양의 혁명적 사상은 당시의 지배이념에 대한 비판으로 그 근거를 고대의 전통에서 찾곤 했다. 다산의 개혁론도 전통에 내재된 본래적 가치를 재각성함으로써 현재의 묵은 폐단을 제거하는 논리를 취하고 있다.

다산은 유교의 중심적인 명제들을 다시 해석한다. 이(理)라는 관념의 세계로 해석한 주자와 달리, 실천이 가능한 실학적 사고로 새로운 경전 해석을 한 것이 다산의 경학이었다.

②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학문.

다산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학문자세를 견지했다. 그리고 고증학의 실증적 태도 등 객관적 학문자세를 따르지만 그에 머물지 않았다. 실증이라는 수단에 매몰되지 않고 실용이라는 목적을 추구했다.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추구했던 것이다.

③ 경세학,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사상.

경학과 더불어 다산의 중심과제인 경세학은 당시 사회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세상은 썩고 병들지 않은 분야가 없었다는 것이 다산의 진단이었다. 다산은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할(新我之舊邦)’ 생각이라 했다.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체제로 바꾸려는 의사로 경세유표를 저작했다는 것이다.

④ 민(民)이 근본이다.

다산은 당시의 치자-피치자의 구조에서 백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다산은 목민심서 서문에서 군자의 학문은 수신(修身)이 그 절반이요, 나머지 절반은 목민(牧民)이라 했다. 그리고 목민관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으로 ‘율기’, ‘봉공’, ‘애민’ 세 가지를 버리로 삼고 있다. 이 모두가 백성 한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었으면 하는 것이 다산의 마음이었다. 흥흥신서를 지은 것도 법의 집행에서 억울한 백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⑤ 기술을 개발하여 백성을 편하고 넉넉하게.

다산은 그의 「기예론(技藝論)」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농업의 기예나 직조의 기예를 정교하게 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병기의 기예를 정교하게 하여 용맹을 돕고 그 위태로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 밖에도 의술과 백공의 기예가 정교해지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넉넉하여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

IV. 토지제도 <전론>의 이해

20051119 박 진 희

1) 정약용의 <전론>

다산은 <전론>에서 “백성의 재산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토지를 개인이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이 희생당하므로 여전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여전법이란 <여>라는 30가구 정도의 촌락 공동체를 중심으로,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는 방식으로, 수확물은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한다. 여(閭)에는 여의 우두머리 여장을 두고, 1여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1여를 경작케 하며,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는 경계선을 없애고, 모든 일을 여장의 명령에 따르게 한다. 여장은 사람들이 하루 일할 때마다 개인의 노동량을 빠짐없이 장부에 적어 두었다가, 모든 수확물을 분배하게 한다. 관청에 바치는 세금과 여장의 녹봉을 뺀 다음, 나머지 곡식을 노동량에 따라 사람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된다면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그만큼 곡식을 많이 받고, 노력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적을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힘써 일하면 재산도 많아지고 풍속, 효도, 예절이 자리 잡힐 것이라고 하여, 여전제도가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였다. 뒤이어 <여전제> 하에서 선비의 역할은 주로 기술개발을 통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병제의 문제를 거론하여, 이는 여전제가 마련됨으로써 군사제도도 통솔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유는 각 여장을 각 장교로 두고, 그 아래 이장을 두어 무관으로 삼으며, 그 아래 방장을 두어 명령을 듣게 하여 군사제도로 삼는다면 전진과 후진이, 평소의 배우고 가르침에 있어 군율과 비슷해지므로 병제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여전론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①농토는 완전 국유지로 한다. ②토지를 일정한 구획으로 나누어, 1여를 30가구로 하여 공동 경작하도록 한다. ③여에는 여장(閭長)을 두고 경작과 분배를 관장하도록 한다. (경작면적의 불균형은 자율적 조절기능에 맡기도록 한다). ④거주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인정한다. (여기서 정약용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면 세상이 어지럽게 되는 근본이 되겠지만, 10년 정도 시행하면 토지가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며, 백성들의 전지 소유도 고르게 되고, 백성들의 가난함과 부유함도 고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게 된 후에 호적을 만들어 예측시키고 문서를 만들어서 이사하는 것을 관리하게 한다.)

2) 균전. 한전제 대한 다산의 반론

실학시대에는 토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다양했다. 유형원은 <균전론>을 내세웠고, 이익은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다산은 이 <균전론>과 <한전론>을 모두 반대하면서 소위 <여전론>을 내세우게 된다. 다산이 균전제를 반대한 이유는, 균전이란 전지와 인구를 제한하여 골고루 나누는 것인데, 한가구수의 인구수는 매월 달라지고, 매년 바뀌므로 비록 수확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털끝만 한 차이점을 살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어떤 땅은 기름지고 어떤 땅은 척박할 것인데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균전제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한전제는 개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한정시켜, 일정량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남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사들인들 누가 알겠는가? 따라서 한전제도 실시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산은 균전제와 한전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농지를 갖게 하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다산은 농부가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같이 일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기에는 부국강병을 위한 다산의 충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농사짓는 이에게 전지를 갖게 하고, 짓지 않는 자에게 전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뜻이다.> - 다산

V. 정약용의 관련 서적

20061120 송 아 름

1) 경학류(철학,종교,윤리)

<대학><중용><맹자><논어><서경><주역><예기>등, 기타서적들이 있다.

2) 경세학류(경제,법률,지리)

① 경세유표(經世遺表)-49권으로 중국의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쓴 정약용의 국가개혁론으로 처음 이름은 방례 초본이라고 한다.(1817년)

② 목민심서(牧民心書)-48권으로 지방관들의 치적과 폐해를 고금의 사례를 통해 보여 주며, 수령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를 열거하였다(1818년). 이와 관련된 서적으로서, 산재냉화(山齋冷話)가 있는데, 수령과 백성 사이에 갖추어야 할 사항을 기술한 교훈집이다. 목민심서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③ 흥흥신서(欽欽新書)-30권 형벌과 재판에 관한 사항을 144개 조항의 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흥흥은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뜻이다. 처음 이름은 명청록(明清錄)이라하였다.(1819년)

④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총10권으로 우리나라의 지리를 여러 지역별로 해설하고, 그 육관을 그린 책이다. 줄여 강역고라고도 한다(1811년)

⑤ 대동수경(大東水經)- 2권으로 되어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등 임진강이북 북한지방의 강과 하천을 주변지리와 함께 상세히 수록한 지리서이다 (1814년)

⑥ 아방비어고(我邦備禦考)-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를 집대성한 책이다. 모두 30권으로 이 가운데 민보의(民堡議),상토지(桑土誌) 2권, 행군촬요(行軍撮要), 일본고(日本考) 등이 여유 당전서 보유에 실려 있다

3) 일기류

① 금정일기(金井日記)-1795년 병조참의(3품)에서 금정찰방(7품)으로 좌천당했을 때의 생활을 기록한 일기.②사주일록(舍珠日錄)-1797년 6월 동부승지가 되어 정조 임금을 측근에서 모시던 생활을 쓴 정치일기.

4) 실용서

① 구고원류(句股原流)-동양의 구고수학의 기반 위에서 서양의 삼각기하학을 수용하여 직 각삼각법, 평면삼각법, 구면삼각법 등을 체계화한 수학 이론서이다

② 여범지남(儸範指南)-사륙번려문을 짓는 방법을 기술한 일종의 작문지침서이다.

③ 아언각비(雅言覺非)- 우리 나라의 민간에서 흔히 쓰이는 한자말의 어원을 추적하여 풀이한 책이다

④ 소학주관(小學珠串)-1811년, 3권. 어린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300조목을 뽑아서 차례로 열거한 뒤 출전과 내용을 설명한 명물수목(名物數目)이다.교육과 관련된 서적으로 아학편(兒學編)이 있다. 천자문이 한자입문 교재로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 새로 쓴 한자 교과서이다. 어린이들의 생활 주변의 일을 소재로 엮었다. 후에 지식영이 이 책에 국문,일문,영문을 각각 붙여 출판하기도 하였다. ⑤제경(弟經)-강진 유배시에 소학(小學)을 바탕으로 새로 쓴 어린이용 윤리교과서가 있다.

⑥ 이담속찬(耳談續纂)-1820년. 1권. 민간에서 널리 쓰이는 속담을 모은 속담집으로. 중국 속담 170여 개 조와 우리 나라 속담 241조를 소개하고 출전을 밝혔다. 1801년에 쓴 백언시(百諺時)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7조 - 김영랑>

I . 김영랑의 생애

20051130 이 민 혁

김영랑(본명 김윤식)은 1903년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에서 대지주 집안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14세되던 1916년에 상경하여 YMCA에서 영어를 학습한 뒤 휘문의숙에 입학하였다. 그러다 3학년이던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고향 강진에서 거사하려다 일본경찰에게 체포당해 6개월 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게 된다. 그 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아오야마 학원 중학부와 영문과를 거치는 동안 C.G.로세티, J.키츠 등의 시를 탐독하여 서정의 세계를 넓혔다. 그리고 1923년 동경 외국어 학교 독문과에 입학한 김영랑은 동향출신의 박용철(朴龍喆, 1904~1938)을 만나게 되는데 후일 《시문학》동인으로 활동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1923년에 일어난 관동대지진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뒤 광복 때까지 고향에서 지냈다고 한다. 1930년 대에 와서 김영랑은 박용철, 정지용 등과 함께 《시문학》의 동인으로 참가하여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쓸쓸한 뒤편>, <제야> 등의 서정시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내 마음 아실 이>, <가늘한 내음>, <모란이 피기까지는> 등의 서정시를 계속 발표하였고, 1935년에는 첫째 시집인 <영랑시집>을 간행하였다.

일제강점기 말에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저항 자세를 보여주었고, 8.15광복 후에는 강진에서 우익운동을 주도하며 대한독립촉성회에 관여하면서 강진 대한청년회 단장을 역임하는 등 자신의 시의 세계와는 달리 행동파적 일면을 보였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는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은신해 있다가 1950년 9.28 수복 당시 포탄의 파편에 부상을 입고 이튿날 운명하였다.

<연보>

- 1903 1월 16일 전라남도 강진의 대지주 장남으로 출생
- 1915 강진보통학교 졸업
- 1917 휘문의숙 입학
- 1919 3.1운동 때 강진에서 거사하려다 발각되어 6개월간 투옥. 휘문의숙 중퇴
- 1920 독일 아오야마학원 중학부 입학
- 1922 아오야마학원 영문과 진학
- 1923 동경 외국어 학교 독문과 입학. 관동 대지진으로 학업중단 후 귀국
- 1930 정지용 등과 더불어 박용철 주재의<시문학>동인으로 참가
- 1945 강진에서 대한독립촉성국민회 결성, 단장 역임, 대한청년단장 역임
- 1949 공보처 출판국장 취임, 6개월만에 사임
- 1950 9월 29일 포탄의 파편에 맞고 사망

II. 김영랑의 시 세계

20061123 안 준 호

김영랑의 시세계는 ‘아름다움은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키이츠(Keats, 1795-1821, 영국 낭만파 시인, 진선미의 조화와 시인의 사명에 큰 관심을 둔 시인)의 말에 큰 영향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초기시의 고요하고 미세한 감각과 내면의 세계가 보여준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는 이것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의 후기시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함으로서 정갈한 시적 구조와 예술적 가치의 약화를 초래했으나 이 역시 순결한 삶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낳은 결과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선 김영랑은 경향시 위주였던 당시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 김영랑의 시에는 ‘내 마음’이라는 어휘가 유달리 많이 보이는데 그가 이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은 내면의 순결성을 표현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직접 제시하지 않고 대부분 자연의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의 초기 시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맑고 깨끗하고 고요한 자연의 정경은 그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것들이다.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에 제시된 아침 햇살처럼 빛나는 은빛의 강물, <제야>에 제시된 맑은 샘물과 밤의 심상 등은 모두 마음의 순결성을 나타내는 예들이다. 김영랑 서정시의 출발은 바로 이 순결성에 있었다. 이 순결성이 그의 시를 아름다운 해조와 서정주의의 극치로 몰아간 것이다. 그 순결한 마음은 자연의 미묘한 변화와 대응되므로 분명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김영랑은 자연의 맑고 깨끗한 정경을 통해 마음의 순결성을 보여 주었는데, 자연의 정결한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황홀감을 갖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편으로 영랑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시인 자신의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음악적 장단과 호응을 이루며 하나의 정경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오롯한 미의 원광을 두르게 된다. 가령 영랑의 <오월> 같은 시는 봄 들판의 약동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인데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구사하여 심미감을 높이고 운율의 변화를 통하여 흥겨운 율동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서정적 표현의 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우리 시의 역사에서 귀중히 간직하고 전수해야 할 표현상의 백미(白眉)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영랑은 맑고 깨끗한 자연의 정경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순결한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남도의 이미지와 언어로 마음의 상태를 낮은 목소리로 노래한 시에는 고향의 풍광과 언어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이처럼 고향 주변의 자연 환경이 김영랑 시의 정조에 영향을 끼쳤다.

III.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이해

20031140 유 아 미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봄을 기돌리고 잇슬테요
모란이 뚝뚝 떠러져버린날
나는 비로소 봄을여윈 서름에 잠길테요
五月어느날 그하로 무덥든날
떠러져누운 꽃잎마저 시드려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최도 없어지고
빠쳐오르든 내보람 서운케 문혀졌느니
모란이 지고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말아
三百예순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잇슬테요 찬란한슬픔의 봄을
(『文學』 3호, 1934. 4)

이 시는 영랑의 대표작으로 《文學》 3호에 발표되어 있다. 모란속에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낀 영랑은 이 시에다 ‘기다리는 정서’와 ‘잃어버린 설움’을 갈등시키고 있다. 모란은 그의 정신적 의거처로서 이상의 실현에 보다 강렬한 집념의 표상이다. 영랑이 참고 기다리고 또 우는 것도 모란이 피고 지는 까닭이다. ‘三百예순날’은 모란이 피는 날과 그것이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의 연속으로 그의 모든 보람있는 날로 만들고 있으나, 그 감정의 밑바닥에는 상실감과 허전함이 깔려 흐르고 있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가(古家)에 피어 있었던 모란, 그들이 피기를 기다리는 ‘五月’, 다시 말해서 영랑이 기다리고 또 보내기를 꺼려하는 ‘봄’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일까? 모란이 피는 ‘五月’이 가면 또 다시 그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봄’은 영랑이 살던 시대배경이나 사회환경으로 보아 식민지 치하의 지식인들이 가졌던 실의와 좌절감에서 벗어나 그들의 보람과 이상이 꽃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다.

‘빠쳐오르든 내보람 서운케 문혀졌느니’의 구절에서 모란이 인생의 소망이요 보람임을 알 수 있다. 아마 모란의 찬란하고도 슬픈 미적(美的) 세계는 그가 바라는 이상경지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모란이 피기까지, 즉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고 도래하기까지 소망과 봄이 성취될 수 있는 봄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란이 지면, 즉 이상 세계가 무너지면 삼백예순날 일 년 내내 섭섭해서 우는 것이다. 모란의 낙하, 소망과 보람의 한없는 상실과 좌절,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눈물이 있는 것이다.

그의 이상세계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며, 이 세계를 기다리고 바란다는 의미에서 영랑은 감상적 이상주의자라 할 수 있다.

IV. 김영랑의 문학관

20051127 원 수 진

김영랑의 문학세계는 고향 주변의 자연 환경이 시의 정조에 영향을 끼쳤다. 남도의 이미지와 언어를 가지고 마음의 상태를 낮은 목소리로 노래하였으며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였다. 그의 작품은 고향의 이미지와 소재를 수용한다. 또한 고향의 풍광과 언어가 배어 있다. 이것이 카프와 모더니즘에 휩쓸리지 않고 순수한 문학 세계를 구축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다. 당대의 현실보다는 흠어져 가는 것에 대한 슬픔, 시간 속에서 명멸해 가는 인간의 운명에 집착하였다.

그는 1930년 3월 박용철(朴龍喆), 정지용(鄭芝溶), 이하운(異河潤) 등과 창간한 동인지 《시문학》에 시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언덕에 바로 누워〉 등 6편과 〈사행소곡(四行小曲)〉 7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인생태도에 있어서 회의 같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슬픔’이나 ‘눈물’의 용어가 수없이 반복되면서도 비애의식(悲哀意識)은 영탄이나 감상(感傷)에 기울지 않고, ‘마음’의 내부로 향해 정감의 시 세계를 이룩하고 있다.

1940년 전후로 〈거문고〉, 〈독을 차고〉, 〈망각〉, 〈묘비명〉 등 일련의 시작품에서는 형태적인 변모와 함께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죽음’ 의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죽음의식은 초기 시에서와 같이 감상적인 원인이 아니라 일제 치하의 민족관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해방 후에 쓴 〈바다로 가자〉, 〈천리(千里)를 올라 온다〉 등은 일제 치하의 제한된 공간의식과 강박관념에는 벗어나 새나라 건설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강한 의욕으로 충만 되어 있다.

《시문학》은 박용철(朴龍喆)이 주재한 순수 문학 옹호의 성격을 지닌 잡지로 그 이론의 기수는 박용철이었다. 그는 문학에 있어서의 순수성, 언어의 세련미, 섬세한 감각, 애잔한 정서, 음악적 율조 등을 강조하는 시작(詩作) 이론을 펼쳤다. 이런 이론에 가장 충실했던 시인은 김영랑이었다. 박용철과 김영랑이 시문학파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

흔히 언어의 조탁(彫琢)과 세련미, 순수 서정의 세계, 애잔하고 맑은 정서, 곱고 섬세한 가락 등의 특징을 지닌 것으로 알려지는 시문학파의 대표는 역시 김영랑이었다.

김영랑의 시의 특징은 먼저, 제목이 없다는 것이다.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예 제목이 없고, 있는 것도 잡지 발표의 절차상 시의 첫 행을 제목화한 데 불과하였다. 둘째, 영랑은 자신의 내면에 흐르는 특징적이고 섬세한 정서를 붙잡아 아름다운 시어와 음악적 율조에 실어 표현했던 시인이다.

문학이 언어 예술이라 할 때, 언어적 측면에서 가장 충실했던 시인의 한 사람이었다.

V. 김영랑 관련유적

20061122 안 윤 정

강진읍 남성리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으로 유명한 영랑 김윤식의 생가가 있다. 1986년부터 전라남도지방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아 오고 있다. 이곳은 영랑 김윤식이 태어난 생가일 뿐 아니라 영랑 시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성숙되어서 충분히 기릴 만한 가치가 있는 집이다. 영랑은 8.15광복 이전까지 이곳에서 살면서 무려 60여 편의 시를 썼다. 영랑이 남긴 시가 80여 편 정도인데, 그 중 3분의 2 정도가 이 곳에서 씌어졌다. 영랑은 1948년 솔가하여 서울로 이거했고, 그 후 이



영랑생가 광장에서 본 본채

집은 몇 차례 전매되었다가 집주인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개축되었다. 1985년 강진군에서 개인 소유로 된 이 집을 매입하였고 유족들의 고증을 얻어 1992년에는 일부가 변형되었던 안채를, 그리고 1993년에는 철거되었던 문간채를 복원하였다.

영랑 생가를 둘러보면 20세기 초 우리나라 지주 집안이 누렸던 삶의 여유와 윤택함을 느낄 수 있다. 하루 종일 별이 드는 널찍한 대지 위에 자리 잡은 영랑 생가는 지주 집으로서의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행랑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채와 본채에 이르기까지 짜임새가 있다. 조선시대나 식민지 시대 지주들의 집은 자기 소유의 논밭을 한눈에 굽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비해 영랑 생가의 터는 그다지 높지 않다. 영랑의 집안이 작인들에게 군림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대문을 들어서면 영랑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는 사랑채가 있다. 사랑채 옆에는 장독대(흙을 돈구어 대를 만들지 않았으니 장독대라기보다는 그냥 장광이다.)가 있고 장독대 뒤로 수령이 꽤 된 동백나무 한 주가 서 있다. 동백은 1년 내내 푸른 잎새를 자랑하고 있고, 11월말 경부터 2월 정도까지 쉬지 않고 꽃을 피워낸다. 동백나무의 윤택한 푸른 잎과 붉디붉은 꽃망울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영랑 생가에는 울창한 대나무 숲도 있다. 이 대나무 숲이 영랑 생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운치를 더해 주고 있다.

오른편으로는 본채가 있다. 본채의 방안에는 영랑이 생전에 책상 앞에 앉아 집필하던 시고(詩稿)를 다듬고 있는 모습을 재현한 밀랍인형이 모셔져 있다. 이 밀랍인형의 생김새는 사랑채에 모셔진 영랑 초상화의 모습과 방불하다. 영랑생가가 두고두고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가 쓴 시 때문인데 영랑 생가에 와서 마주치는 영랑의 작품은 문 앞에 서있는 시비에 적힌 <모란이 피기까지는>

한 편밖에 없다.



영랑-초상화



영랑-재현밀랍인형



영랑생가 사랑채



영랑-시비

Ⅰ. 조정래(趙廷來)의 생애

20051134 이 한 나

조정래 (趙廷來, 1943.8.17 ~)

조정래는 1943년 전라남도 승주군 선암사에서 시조 시인인 아버지 조종현과 어머니 박성순의 4남 4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을 주로 순천과 벌교에서 지내면서 여순사건과 6·25전쟁을 겪게 되는데, 이 경험은 훗날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친다.

1962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여 홍신선과 강희근 등을 만나 시작(詩作)에 몰두했으며, 1967년 시인 김초혜와 결혼했다. 1970년에는 「현대문학」에 「누명(陋名)」과 「선생님 기행」이 추천되어 문단에 등단했다.

1973년 「월간문학」의 편집장을 하고, 1976년 「소설문예」 발행인으로 활동했다. 1978년에는 도서출판 민예사를 설립하여 1980년까지 대표로 활동했으며,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한국문학」 주간을 지냈다.

1986년부터 『太白山脈』의 연재를 시작하고, 그 해 제1부를 완결한다.(「현대문학」, 9월호) 다음 해인 1987년 제2부를 「한국문학」 1월호부터 12월호까지 연재한다. 그리고 1988년 제3부를 「한국문학」 3월호부터 12월호까지 연재해서 완결한다. 마지막 제 4부를 1989년 「한국문학」 1월호부터 11월호까지 연재해서 완결하고, 전 10권을 완간한다.

1994년 6월 「아리랑」 제1부 '아, 한반도'를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그 해 8월 제2부 '민족혼'을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다음 해인 1995년 2월 「아리랑」 제9권을 출간하고, 그 해 7월 25일 「아리랑」의 집필을 완결한다. 「아리랑」은 작가가 4년 8개월 동안 이루어낸 결실이었다. 7월에 제 11권 출간하고, 8월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제12권을 출간(전12권) 한다.

1998년 세 번째 대하소설 「한강」을, <한겨레신문>의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5월 15일부터 연재를 시작했다. 이 당시 「太白山脈」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걸려있다가 2005년 말에 무혐의로 풀렸다.

수상으로는 「유형의 땅」으로 현대문학상(1981)을, 「인간의 문」으로 대한민국문학상(1982), 「메아리 메아리」로 소설문학작품상(1984), 「태백산맥」으로 단재문학상(1991)을 수상했다. 그리고 1998년 제1회 노신문학상을 수상했다.

II. 조정래의 소설세계 - 아리랑

20061124 여 환 정

20061126 유 지 나

「아리랑」이라는 제명이 포괄하는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구한말에서 일제 치하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일백 몇 십년이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땅을 비롯해서 만주, 연해주, 소련의 중근동, 일본, 하와이, 미주,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로 웅대한 숨겨진 뜻이 소설의 제목부터 담겨 있다. 노래 아리랑을 부르면서 죽어간 식민지시대의 수많은 젊은이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삶의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던 이 땅과 그 땅을 벗어난 아득한 외지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아리랑」이다.

「아리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김제의 소작농 방영근은 빚 20원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팔려간다. 친일파 백종두는 일진회 군산지부장이 되고 진보적 지식인 송수익은 의병투쟁에 나선다. 토지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자 수많은 농민들은 졸지에 땅을 빼앗기고 산발적 시위에 가담했던 농민들은 총살당하거나 징역을 산다.

제2부는 하와이에서는 거류민 조직이 결성되고 3·1운동이 일어나고, 만주에서는 여러 계파의 단체들이 항일투쟁을 전개하는 등 한민족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송수익은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 대장이 되고, 대중교에 입신(入信)한다. 그 당시 재만 민족주의 진영 항일무력의 주력은 대중교의 지도력 밑에 있었다. 방영근의 동생 방대근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 토벌대는 재만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한다. 방영근의 어머니 감골댁은 이때 살해된다. 한편 김제평야에서는 하시모도가 죽산면의 농토를 반 이상 차지한다.

제3부는 관동대지진으로 재일 한국인들은 무참하게 살해된다. 국내외에서 공산주의 운동은 다양한 이념의 갈래를 보이며 항일운동으로 나아간다. 부잣집 아들 정도규는 사회주의자가 되고, 연해주 빨치산에 가담한다. 송수익은 관동군에 체포되고 국내에서 지주 하시모도의 권력과 횡포는 날로 커 간다.

제4부는 일본군의 재만 조선 독립군 토벌 작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조선 독립군은 참혹하게 무너져가면서 결사 항전한다. 재만 한인 20만 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하고, 일본군은 진주만을 기습한다. 조선여자들은 정신대로 끌려나간다. 관동군에 붙잡힌 송수익은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 옥사한다. 송수익이 옥사하자 그의 아들 송가원(의사)은 의업을 포기하고 광복군에 가담한다.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자 러시아는 선전포고를 한다. 만주에서 일본의 힘이 빠져나가자 중국인들은 조선인들의 농토를 빼앗기 위해 쇠스랑을 들고 몰려온다. 조선인들은 다시 유랑의 길로 나선다. 이것이 8·15 해방이다.

소설의 배경은 전국 최대의 곡창이었던 김제 만경평야를 배경으로 일제 수탈과 강제 징용, 소작쟁의, 독립운동 등 구한말부터 해방기까지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소설의 의의를 보면, 분단대립으로 반 토막 나고, 또 친일파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차단시키고 망각을 조장한 식민지시대의 역사를 구체적이면 총체적으로 바로 알고, 우리 모두가 식민지시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굴복감과 패배감, 수치심을 진실한 역사 사실들을 통해 우리의 식민지시대에는 저항과 투쟁과 승리의 역사였음을 확인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상실되어 있는 민족적 긍지감과 자긍심,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III. 조정래의 소설세계 - 한강

20061125 연 휘 모

20061128 윤 옥 철

「한강」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감 있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한국현대사를 나타내며, 그 당시 유명했던 사건인 4·19혁명, 5·16쿠데타, 유신,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보여주는 조정래 문학의 완결판이다..

「한강」의 주요인물로는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분단의 비극을 제 몸으로 겪으며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유일민, 유일표 형제와 이 형제를 도와주는 장학사의 김선오·이규백·홍영주, 유일민의 친구인 건달 서동철과 유일표의 친구 허진, 곧은 심성의 소유자로 군인출신의 의원 한인곤 등 다양한 인물들의 삶으로 우리민족사를 반영한다.

이 소설은 1960년 4·19혁명으로 인해 이승만의 하야 후부터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의 이야기이다. 이 기간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시기이다. 이 소설의 주요공간은 서울인데, 많은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건들을 힘없는 서민들의 시점으로 그 당시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각 지방의 방언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현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이자 책의 제목인 「한강」의 의미는 민족분단의 상징인 ‘한 많은 강’, ‘한스러운 강’인 동시에 민족통일의 상징인 ‘하나 되어 흐르는 강’으로, 또 민족 동질성의 상징인 ‘한민족의 젖줄과 대동맥인 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 민족의 미래 상징인 ‘넓고 크게 한 없이 흐르는 강’으로 내세워 분단의 비극과 산업화의 그늘, 그리고 독재정치 아래 이어져온 우리민족의 끈질긴 삶과 한, 끈질긴 생명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한 국가에서 친일파로 인해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서는 친일파와의 갈등구조를 주로 표현하고, 그로 인한 그 당시의 민주운동과 정치, 경제사를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그리고 작가는 자신만의 글쓰기를 추구하는 것 같은데, 많은 대화체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은 상상력에 의한 글쓰기를 하지만 작가는 우리가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들을 소재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가의 소설을 올바른 독자의 자세로 읽고, 작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태백산맥>의 이해

20051132 이 원 경

「태백산맥」은 총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여순반란사건이 종결된 직후부터 1948년 12월 빨치산 부대가 울어지역을 해방구로 장악하는 과정까지 그려져 있다. 제2부는 여순사건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일어난 사건들이 1949년 1월의 소작농 봉기를 전후로 하여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3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12월까지의 6.25전쟁의 현장과 함께 이 전쟁의 성격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제4부는 1950년 12월부터 1953년 7월 휴전 협정 직후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투쟁의 방향을 '역사 투쟁'으로 바꾼 후, 중심인물인 염상진의 죽음으로 소설의 사건은 종결된다.

주요인물로는 좌익에 염상진·하대치·정하섭·안창민 등이 있고, 김범우·손승호·서민영등의 지식인 그룹, 염상구를 중심으로 한 청년단, 최익승·윤영춘·송기욱 등의 친일적 지주군 등이 있다. 이 인물들이 바로 당대 현실을 대변하는 인물들로, 「태백산맥」은 그들과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민족 통일'의 진로를 가로막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역사적 뿌리를 파헤치면서 이를 거시적 시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역사적 흐름을 개관하면서도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삶의 숨결까지도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역사적 시각이 작품 속에 하나의 큰 줄기로 관류(貫流)되어 자리하고 있다.

소설의 배경을 보면, 한반도가 해방과 분단을 동시에 맞아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4·3항쟁과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 10월부터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되어 분단된 1953년 10월까지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작품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부터 해방 직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한국근대사의 격동기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태백산맥」은 벌교에서 시작하여 만주, 서울, 부산, 강원도까지 배경이 넓어지지만 소설의 중심공간은 항상 제한된 공간에 두고 있고 결국 벌교라는 작은 공간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을 걸죽한 육담과 전라도 방언으로 리얼하게 전개되었다.

작가는 한 민족이 두 개의 적대 세력으로 분열되고, 그것이 분단 구조의 대결 상황으로 빠져들어 전쟁의 참극을 빚어내는 과정을 그려냄과 동시에 그러한 대결 구조 속에서 민중이 어떻게 그 위기에 대처하는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분단 상황, 그 대립 갈등의 과정의 추상적인 설명 대신 인물에 대한 성격 묘사를 통해 특수한 개인성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그 개인성의 역사적 필연성을 그들의 삶의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분단과 6·25전쟁을 다룬 소설은 많다. 그러나 『태백산맥』만큼 이를 깊고 넓게 형상화한 소설은 없다. 이 책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분단 이데올로기를 일정하게 극복하고 있고, 현 시기의 민족, 민주 운동의 진전에 의한 당시의 사회, 정치사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작품 안에서 역사, 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그 결과 여순 민중항쟁에서 6·25에 걸친 기간의 분단 상황에 대한 총체적 파악에 성공하고 있다.

6·25전쟁의 비극성을 우리 민족 내부의 모순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출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작품의 불온성 시비에 휘말려 고초를 겪기도 했다.

<참고>

[등장인물]

* **염상진** - 소작 출신, 사범학교 출신, 남로당 보성군책, 벌교지역 빨치산 대장

이지숙 - 담양 출신, 염상진의 애인, 여학교 선생으로 벌교에 오기 전부터 남로당원,

염상구 - 염상진 동생으로 벌교 율패, 자라면서 차별을 받아 형 염상진을 싫어함, 대동청년단 벌교 감찰부장, 남아 있는 좌익 부인들과 사통하는 등 좌익 관련자들을 괴롭히는 악인형 인간. 염상구가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 외서덕을 범할 때 꼬막맛으로 표현(쫄깃쫄깃), 외서덕은 염상구의 아이를 낳지만 나중에 빨치산이 되어 남편 따라 지리산으로 입산. - 외서덕 꼬막나라(061-858-3330) 식당이 소화다리 앞 엘림아파트상가 내에 있음

* **하대치** - 소작출신, 일본 지주 중도와 소작쟁의를 하다 빨치산이 됨, 염상진의 오른팔로 빨치산 부대장, 부 하판석은 일제 때 소작쟁의에 가담했고, 조부는 동학교도로 관군과 대치하는 등 대대로 핍박받는 자의 입장에서 저항한 집안 출신.

들몰덕(순심) - 하대치 부인,

외서덕 - 빨치산 강동식의 아내로 염상구에게 욕을 봄

* **정하섭** : 지주(술도가 양조장집) 아들로 빨치산, 인테리

소화 : 무당 月女의 딸, 정하섭과 연인관계를 맺어 잉태까지 함, 월녀는 정하섭의 조부와 관계를 맺어 소화를 낳음, 중풍으로 말을 못함, 소화와 정하섭의 관계를 말은 못하고 안타까워 하다가 사망.

* **김범우** : 일제 때 학병으로 징용 갔다가 탈출하여 OSS대원으로 활약, 중도적 위치에서 좌우를 조정했으나 한국전쟁 이후 좌익으로 전향, 부 김사용은 전통사회의 선비상으로 지주이나 인심을 잃지 않음, 형 김범주는 독립군으로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한국전쟁 때 북측의 전남 서남지역 사령관으로 등장, 염상진이 여순사태 전날 김범우를 피하도록 귀뜸해 주었고 인민재판 때는 김사용을 살려 냄

* **안창민** - 교사출신 빨치산, 염상민의 밑에서 빨치산 정신교육 담당, 후에 염상민의 뒤를 이어 빨치산 대장이 됨.

* **문기수** - 벌교 책방 주인으로 세포조직, 정하섭을 좋아하는 정임의 아버지,

* **심재모** - 중위, 여순사태 후 보성지구계엄사령관, 학병으로 버마 참전, 양식 있는 군인

* **강동기** - “머시여 벌거지!”라는 말에 지주 서운상을 삼으로 찌고 빨치산이 됨

* **최익승** - 이 지역 국회의원, 악덕 지주

* 기타 지주들은 자기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는 극우 악인 역

[빨치산의 율어(면) 점령]

여순사태 이후 야산무력투쟁을 하던 빨치산이 벌교의 북쪽 지역에 있는 율어를 점령하여 이상적인 공산국가를 실시. 이 때 벌교의 민간인이 율어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고 있는 자식에게 며느리를 보내 잉태하게 하여 대를 잇게 해달라고 청원, 심재모 보성지구계엄사령관과 염상진 보성지구빨치산대장의 중간에서 김범우가 다리를 놓아 성사시킴.

작가 조정래는 11년간 용공 문제로 재판 중에 있다가 2005년 말에 무혐의 판정을 받음, 정부에서 2006년에는 여순사태의 실정을 본격적으로 밝혀낸다고 함

한국전쟁의 원인을 동학, 소작쟁의 등 악덕 지주에 대한 소작인들의 항거와, 특히 해방후 친일악덕지주계급을 정리하지 못한, 그리고 미군정이 이들을 옹호함으로써 이에 반발한 민중의 지지 기반 하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파악하고 있다.

V. 벌교와 <태백산맥>의 배경

20051131 이 범 회

소설 「태백산맥」의 시대적 배경은 1948년 10월에서 1953년으로 일제강점기를 지나 휴전 직후까지를 그리고 있다. 공간적 배경은 벌교에서 만주, 서울, 부산, 강원도까지 광범위하게 전개된다. 다만, 중심적인 활동은 대부분 벌교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기초가 벌교에 마련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뗏목다리’라는 뜻의 벌교는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다고 해도 무관한 지역으로 조선에서 수탈한 쌀을 일본으로 수송하기 좋은 위치라는 이유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제의 식민정책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벌교는 농민위원회를 결성한 벌교의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일제로부터의 노예적 상태를 벗어나고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몸부림으로 농민운동과 소작쟁의를 일으켰던 곳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설 내에서도 초반부에 살짝 거론되어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벌교의 암울한 운명을 표현하는 기틀을 잡게 된다. 또한 소작쟁의를 거쳐 후반의 빨치산 활동까지 거치는 동안 벌교라는 지역은 단순한 하나의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자체가 되며 벌교 사람들은 당시의 한민족 전체를 대표하게 된다.

「태백산맥」속의 벌교는 일본이 나가자 미국이 들어온다. 이러한 해방 이후의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는 모습은 흡사 한반도와 같다. 또한 한민족의 삶의 터전인 땅 문제에 들어가서는 기존의 구시대적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와 새로운 사업을 통한 지주와 소작농의 충돌로 인한 시대적 충돌도 볼 수 있다. 이는 곧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의 확연히 다른 개혁의 비교로 넘어가며 토지개혁문제에서 충돌을 빚어 이데올로기가 나타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소설은 이데올로기가 작용하면서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부각시키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난다. 이데올로기의 양측에서 억눌리며 사는 힘든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꼬막이나 소리, 주먹패와 같은 이야기들과 여러 특성을 지닌 염상진, 김범우, 소화, 서민영, 외서덕, 안창민, 이지숙, 들몰덕 등 많은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며 벌교의 지역적 특색을 만들어간다. 결정적으로 지리산을 끼고 있다는 사실은 후에 빨치산의 저항활동의 거처를 마련함으로서 벌교라는 지역을 「태백산맥」의 뼈대로 만들어버린다.

결국 벌교라는 지역은 작가 조정래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방대한 조사를 통하여 당시에 정말 꼭 그랬을 것만 같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며 픽션뿐만이 아닌 조사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많은 사건을 소설 속에 복사하여 사실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소설에 등장하는 벌교의 여러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이며 실제로 당시엔 소설에서와 유사하거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벌교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에서 다른 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벌교만의 소설이면서 소설속의 벌교이다.

VI. 조정래 관련유적

20061127 윤 성 준

벌교포구와 지척에 자리한 소화다리이다. 이 다리는 여순항쟁과 한국전쟁의 비극을 모조리 지켜왔다. 좌익 성향의 군인들은 우익인사를 학살하고, 그들이 퇴각한 후에는 우익청년들에 의해 좌익인사들이 처참히 살해당해 버려진 곳, 석양이 아닌 피로 인해 붉었던 강이다.

부용교(芙蓉橋)라는 본래 이름 대신 소화(昭和·일황의 연호)다리로 명칭을 바꿔야했던 식민지의 비극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현상이다.



작곡자인 안성현이 월북했고, 빨치산들이 즐겨 불렀다는 이유로 남한 사회에서 50여 년간 금기의 대상이었던 노래 '부용산'이 석비(石碑)에 새겨져 있었다.

남도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반세기를 불려온 이 슬픔의 노래가 공인된 장소에 노래비로 세워진 것은 불과 2년 전, 노래를 단순히 노래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잔인한 시절이다.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이유일 수 있었던 야차(夜叉)의 시간들. 대체 이런 불합리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이며 누가 있어 억울한 영혼들을 위로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의문들이 조정래로 하여금 역사와 인간, 사회와 문학을 고민하게 했고, 「태백산맥」은 그 고민의 산물이다. 산의 정상에 서니 벌교읍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날의 홀로코스트(Holocaust)를 잊은 것인지,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인지 부용산을 바라보며, 소화다리 아래를 흐르는 벌교천은 무심하기만 했다.

59년 전 여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소년 조정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전남 순천시 승주읍 조계산(曹溪山)에 위치한 선암사. 진흥왕 3년(542년) 아도(阿道)에 창건된 이 절은 원래 65동에 이르는 거대한 사찰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많은 건물이 불에 타 훼손됐다. 인근 송광사와 자웅을 겨루는 수련도량(修鍊道場)으로 그 품안에 보물 제395호 삼층석탑과 전라남도유형문화재 제41호 대웅전을 안고 있는 곳이다.



조정래는 열 살이 되기 전에 이 절을 떠났다. 하지만, 이곳은 조정래에게 특별한 곳이다. 시조시인이기도 했던 아버지 조종현은 어린 아들에게 일찌감치 문학적 분위기를 가르쳤고, 고향 인근에서 일어난 여순항쟁은 철없는 아이에게도 '역사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했다. 유년시절 각인된 문학과 역사에 대한 또렷한 두 기억. 그것들은 이후 수십 년간 조정래 문학의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조정래가 청춘을 바쳐 축조한 역사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풍경소리에 비유한다면 누군가는 비웃을까? 그 소리에 묻어있는 인간의 울음과 역사의 비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쉬이 그럴 수 없다.

I. 김승옥의 생애

20051135 이 현 석

1.

1941년 12월 23일 일본 오사카에서 아버지 김기선과 어머니 윤계자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아명은 학길이다. 5살 때 귀국하였고 1948년에 순천 남국민학교에 입학한다. 여순반란사건 이 발발하면서 부친이 사망하였다.

1952년 월간잡지 <소년세계>에 동시를 투고하여 게재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동시, 콩트 등 창작에 몰두하게 된다. 1960년에 서울대학교 문리대 불문학과 입학해서 교내신문인 <새세대>의 기자로 활동을 시작하여 졸업 때까지 활동한다.

196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생명연습』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하게 된다. 그리고 2년 뒤 탁월한 감수성과 문체로 우리 소설 문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되는 『무진기행』을 발표한다. 그 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1964년 겨울』로 사상계사 제정 동인문학상을 수상한다.

『무진기행』의 영화각본 집필을 계기로 영화계와 관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김지하가 오적사건으로 투옥되어 이호철, 박태순, 이문구 등과 함께 김지하 구명운동을 전개한다. 이 일로 구명운동과 술에 빠져 거의 10년 동안 문학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 후, 1977년 『서울의 달빛 0장』으로 문학사상사 제정 제 1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다시 펜을 잡게 된다. 1981년 4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극적체험을 하고, 성경 공부와 수도 생활을 시작한다. 1999년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있던 중, 2003년 병원에서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아 2년 후에 정식 퇴직한다.

2.

김승옥은 세종대 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던 재작년 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시대를 온통 바꿔놓은 그 찬연한 단어와 마술 같은 문장들이 들어 있던 좌뇌(언어를 관장하는 부위)의 3분의 2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현재까지도 말과 글을 완전히 잘 쓰지는 못한다. 올해로 예순 여섯 살, 다시 모국어 배우고 있다.

II. <무진기행>의 이해

20051136 장 희 주

소설 <무진기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무진’을 배경으로 한다. 그렇다면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무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화자에게 있어서 무진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게 되는 고향의 이미지와는 다른 곳이다. 화자는 인생에서 가장 즐거울 때에는 무진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

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다.’라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무진으로 향한다. 이렇게 볼 때, 무진은 고향이라기보다는 피난처에 불과하다.

무진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미친 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미친 여자를 통해 화자는 원초적으로 자신을 골방으로 처박아 넣은 어머니를 떠오르게 된다. 어머니는 화자의 아내와 장인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화자를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강제적인 권유를 하기 때문이다(화자의 선택과 상관없는). 이는 화자에게 있어선 번뇌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진의 명산물이라던 안개는 어떤 것일까. 안개는 있는 듯 하면서도 없는 듯한 존재다. 마치 왔다가 곧 떠날 사람처럼 말이다. 안개는 화자와 많이 닮아있다. 안개는 있는 것들도 가려지게 만드는 습성이 있다. 안개가 산이나 강을 가리듯 화자에 의해 가려진 ‘조’와 ‘박’이라는 인물들도 가려진 희생양 중에 하나이다.

이 작품은 기존에 있던 작품들과는 사뭇 다른 감수성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바람, 햇빛, 안개 등의 자연을 인간의 밖에 존재하는 단순한 환경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매개체들을 통해서 인간들의 허무의식과 주인공의 모습을 대조해 보게끔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상징적인 의미를 지시하기도 한다.

안개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무진 속의 삶. 이 삶 속에는 화자나 하인숙 또는 독자인 우리들이 은밀히 품고 있는 일탈과 욕정의 끈질긴 욕망이 관련되어있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서울은 인간성이 사라진 계산적인 공간이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양자(주인공이 서울과 무진을 왔다 갔다 하듯이.)를 오가는 존재들은 아닐까. 서울이라는 곳도 인간적인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결국 우리들이 머물러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III. 순천 대대포와 <무진기행>의 배경

20031155 이 진 범

김승옥은 194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1945년 해방과 함께 가족이 전남 순천에 정착함으로써 순천이 그의 실질적 고향이 된다. 김승옥은 어린 시절부터 순천만의 아름다움을 보아온 것이다.

작가는 순천만에 연한 대대포 앞바다와 갯벌이 무진의 장소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는 <무진기행> 때문에 배경의 무대로써 순천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천이 소설을 탄생시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햇볕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만 합성해서 수면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무진기행>의 주인공 윤희중은 유월의 바람 속에 반수면의 상태가 되면서 햇볕의 이미지로 안개와 수면제를 만드는 상상을 한다. 실제로 김승옥은 대대포의 갯벌에 내리쬰는 햇볕에 의해 몽롱하게 풀리고 증발되어 안개처럼 허공을 흘러 다니는 것 같은 상상에 시달렸다고 한다.

‘수심(水深)이 얇은데다가 그런 얇은 바다를 몇 백리나 밖으로 나가야만 비로소 수평선이 보이는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오는 곳이니깐요.’

은빛으로 물든 갈대밭 사이를 뱀처럼 구불거리는 물길과 그 위로 스멀거리는 순천만 일대의 물안개는 가히 장관이다. 작가는 작품에서 실질적인 배경이 된 갈대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안개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만 자세히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바다를 몇 백리나 나가야 진짜 바다다운 바다가 나온다는 그의 표현대로 대대동 앞의 갯벌 면적은 무려 50만여 평에 이른다. 그리고 그 중에 갈대밭은 약 15만평에 이른다. 포구와 인접한 3km의 물길 양쪽이 모두 갈대밭으로 뒤덮여 있다. 이곳, 갈대밭의 물안개가 무진(霧津)을 탄생시킨 것이다.

무진Mujin 10km

방조제를 따라 갈대밭이 펼쳐진 곳, 그 너머 푸른 바다와 함께 해풍(海風)에 섞여 있는 소금기라면 언제든 무진(霧津)으로 떠날 수 있을지도.

IV. 김승옥 관련 유적

20061132 이 승 희

[갈대밭]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서 무진(霧津, 안개나루)이라고 표현한 대대포구의 안개는 소리 없이 찾아와 세상을 삼키고 토해내는 묘한 매력이 있다. 고흥반도와 여수반도에 둘러싸인 순천만은 북쪽으로는 갈대밭, 남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갯벌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최대의 갈대 군락지를 자랑하고 있다. 15만평이던 갈대밭이 매년 넓어져 현재는 70만평에 이른다. 사람 키보다 더 큰 갈대의 군무는 그야말로 탐스런 황금물결을 이룬다. 그 갈대밭 사이로 S자를 그리며 물길이 생겼다.



[신촌의 ‘무진기행’카페]

카페 ‘무진기행’은 소설가 김승옥의 작품 <무진기행> 에서 따온 것이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내려 민들레 영토를 지나 굴다리를 지나면 바로 볼 수 있다. 소박한 외형과 ‘무진기행’이라는 표시만 겨우 해놓은 작은 간판이라서 찾기는 힘들 수 있다. 1986년 문을 열어 20년을 지켜온 카페로써 김승옥도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가 남긴 글들이 카페 벽면에 붙어 있어서 신촌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 10조 - 조태일 》

I. 조태일의 생애

20051137 전 석 민

1941 ~ 2002

전라남도 곡성 출생

경희대학 국문과, 동 대학원 졸업. 광주대 교수 역임. 1964년 대학 2학년 시절 시 "아침 선박"이 경향신문 신춘문학상 수상되어 등단.

"자유가 시인더러"까지 그의 시는 정치 상황에 밀접히 연관된 시였다. "국토"와 "가거도"는 정부에 의해 판매금지 당하였고 시인은 시보다는 자유실천문인협회에 연루되어 투옥되기도 하였다.

결국은 현재 그러했고 근본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의 의문에 도달되는 그의 시적 영감과 이미지의 주제는 향수, 그리움으로 인한 슬픔, 이 슬픔의 관조, 해결책의 모색, 어린 시절의 그리움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속에서 꽃 속에서",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부터 그의 시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는 아마 시적 관심을 현실에서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70년대 한국시의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듯 하다. 그는 인간이 만든 무모한 사회적 사실보다 물, 풀, 바람, 곤충이 있는 자연 현상에서 삶의 진실과 질서를 찾아내었다.

여덟번 째 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에서 사회 정치적 사실의 인식은 한층 더 물러난다. 사실에서 물러나 모성애와 자연의 서정시에서 시인은 자연현상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여 어머니와 자신의 존재의 원천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시에 등장하는 대지, 나무, 꽃, 고향, 어머니는 시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연륜과 평화를 나타내는 것일까.

시집 : "아침선박" (1965), "식칼론" (1970), "국토" (1975), "가거도" (1983), "자유가 시인더러" (1987), "산 속에서 꽃 속에서" (1991),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1995),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1996).

수상 : 제1회 편운(조병화)문학상 (1991), 제10회 만해문학상 (1995)

II. 조태일의 시세계

20061133 이 영 수

조태일은 1970~80년대 당대 민중의 삶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낸 시인들 중의 한 사람이다. 조태일은 물질적 풍요 이면에 가려진 고단한 삶을 포착하고 민중적 일상의 삶을 형상화하여 능동적인 사회적 응전력을 보여 준 것은 1970년대의 민중시가 획득한 귀중한 성과라 평가된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아침」으로 등단하여 1999년 9월 7일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총 8권의 시집과 2권의 시선집, 그리고 평론집, 시론집 등을 남겼다.

현재까지 조태일에 대한 평가는 앞의 문장처럼 1970~80년대의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한 '현실 참여적이고 민중성이 강한 남성적 어조의 시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론이다. 조태일의 시가 현실의 비리에 대한 고발과 저항의 정신을 주제로 삼고 있어 1970년대 말 폭 넓은 민중적 정서의 확대를 가능하게 한 시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신동엽의 대를 이어 투박한 체취가 미덕으로 전복되는 시를 쓰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1960년대 참여시의 대표적 존재로 여겨지는 김수영의 세계를 벗어나 야성적인 힘과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민중적 연대감을 획득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조태일의 시세계를 사회의식과 고향의식을 다룬 작품으로 양분하고 그것이 다시 '눈물' 이미지로 연결·통합된다고 사람들은 평가한다.

그러나 그의 시적 변화는 단순히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현실 투쟁과 내적인 성숙을 단계적으로 밟아가며 삶의 본질에 접근해가는 시적 심화과정이 있어 그만의 독특한 시세계가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조태일의 시가 언제나 동시대를 응대하는 날선 경각심을 포괄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발현 방식을 투쟁일변도로 표출하지 않고, 서정적 감수성을 더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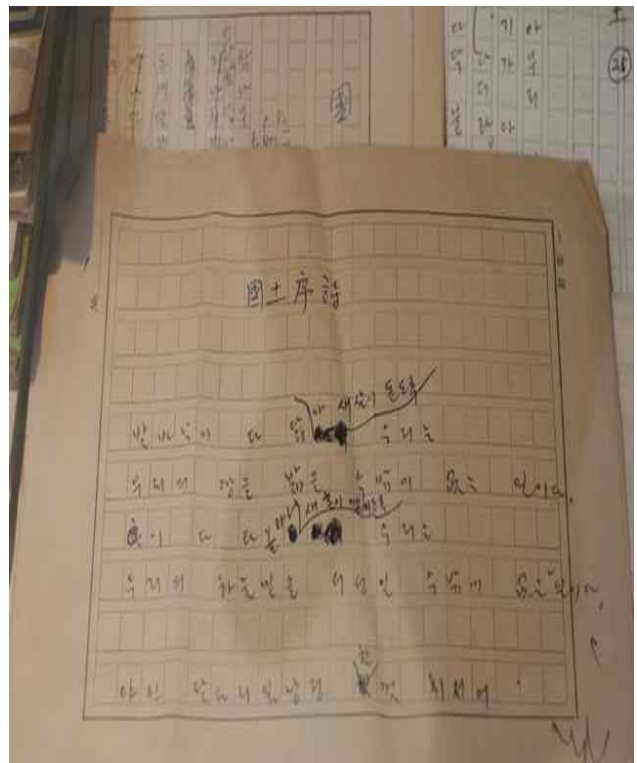
그의 시를 읽으면서 그동안 현실과는 거리가 먼 시라는 생각을 바꾸게 해주었으며, 그 시대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시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가 1970~1980년대에 이루어진 창작은 사람들의 고향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주었고, 그로 인해 그가 사망한 후에도 그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

III. 국토서시(國土序詩)의 이해

20037003 허 승 범

< 전문 >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원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돌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달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탬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탬 일이다.



조태일은 현실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인이다. 그에게 ‘현실’이란, 주로 밝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 어둡고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 시도 그렇다. 시인이 바라본 현실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차라리 암담할 뿐이다.

70년대의 폭압적인 정치 현실에 맞서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의 땅’을 밟고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이며 ‘우리의 가락’으로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풀잎’과 ‘돌멩이’ 혹은 이름 없이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져간 숱한 민중들에게 보내는 시인의 애정은 각별하다.

분단의 현실, 산업사회의 모순, 빈부격차 등 시인은 <국토>를 쓸 무렵에 이러한 의식들로 가득 차 있고 아직도 이런 의식은 계속 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국토>를 쓸 전후의 마음속을 잠시도 떠나지 않았던 핵심적인 관심들은 자유·민주·헌법·노동·민중·언론 등등 자신의 못난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말이었고, 그 말들이 빚어내는 참담한 정서들이었다고 말하였다.

국토에 대한 사랑과 새 역사의 도래를 기다리는 소망을 통해 시인은 억누르는 자, 가진 자, 높은 자들에 대한 부정 의식과 더불어 억눌리는 자, 핏빛은 자, 낮은 자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나타내고 있다. 이 땅은 다스리는 자의 것이 아닌,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또는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두 발로 걸어 답파(踏破)해서 살아 있는 땅임을 깨달은 민중들의 것임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토론’을 출발시키고 있다. 현실을 막강한 힘으로 압박하고 있는 부정적 힘의 실체에 맞서 ‘아원 팔다리일망정’ ‘통째로’의 논리로 맞서는 저항문학의 정수를 이 시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IV. 조태일시인 시문학기념관

20051125 양 정 희

"나의 시는 내가 태어난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의 동리산 품안에 안겨있는 태안사(泰安寺)에서 출발한다. 그곳에서 겪었던 체험들은 원초적 생명력을 형성하여 내 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멧돼지, 사슴, 노루, 늑대, 여우 등과 동무삼아 지냈던 유년생활과 여순사건으로 온 집안이 쑥밭이 되어 버렸던 국민학교 2학년 때의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내 시의 끝도 그 고향에서 멈추리라."

국토(國土)의 시인 조태일은 자신의 문학의 처음과 끝은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태안사라고 생전에 밝힌 바 있다. 이 사찰의 주지로 대처승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일곱 남매의 삶과 역사가 배여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처음과 끝이 배어있는 태안사 경내에서 '조태일 시 문학 기념관' 개관식이 4주기인 7일에 맞춰 열렸다

조태일 시인의 4주기 추도식을 겸해 치러진 시문학 기념관 준공식에는 시인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문인들, 생전에 시인이 가르쳤던 제자들, 가족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조태일 시인이 운영했던 시전문지 『시인』을 사재를 들여 올해 세 번째 복간한 시인 이도윤씨도 참석해 『시인』 지를 다시 복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씨는 "어려운 토양 위에서 다시 태어난 『시인』 지가 조태일 선생의 시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시의 내일을 열어갈 큰 나무로 자랐으면 한다"고 말했다.

태안사의 부지 회사와 곡성군, 문광부 등의 예산 11억4000만원을 들여 조성 4년만에 완공된 '조태일 시 문학 기념관'은 태안사 나들목 1700평 대지에 연건평 170평의 목조식 건물로 말년에 자연에 침잠한 조태일 시인의 시정신을 받들어 친환경적인 2동의 목조건물로 지어졌다. 시인이 생전에 즐겨 사용했던 담배 파이프, 시계, 지갑, 등산화, 육필원고 및 시집들이 전시된 시문학 기념관과 해방이후 국내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시집들을 갖춘 시집 전시실로 구성되었다.

기념관을 설계한 이윤하(40. 건축사무소 노뚝돌 대표) 시인은 "기념관은 조국의 국토에서 상승하는 역동성의 표출이고 대지의 가슴에 뿌리박은 시인의 시적 기상을 표현했다"면서 "자연적 인간인 한 시인이 노래한 시의 투명함이 이 땅 민중의 강인한 삶을 지지하는 버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기념관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V. 조태일 관련유적

20061134 이 은 영

*생가

조태일 시인의 생가인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에 화가와 음악인, 사진작가 등 3명의 연구원을 투입, 15여일 동안 주민들과 생활하며 마을의 문화소재 발굴 작업을 펼치고 있다. 조태일 시인의 작품을 음악과 그림, 사진 등으로 재조명하는 한편 신송경 장군의 전설과 새로 발굴한 문화소재 등을 복합문화공연으로 꾸며 오는 10월22일 선보일 예정이다. 또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로고송도 함께 제작해 주민들의 애郷심을 복돋울 계획이다.

*시문학관



태안사 경내의 나들목에 위치한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은 2003년 가을 문을 열었다. 이 대지는 고인의 시적 성과를 기리기 위해 태안사에서 기증하였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곡성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보기 드문 예이다. 현재 임소혁씨가 관리 중이다. 기념관에는 낡은 등산화와 배낭을 비롯 고인의 여러 유품과 시인을 기리는 문학작품 2천여 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시집인 최남선의 <백팔번뇌> 등 희귀본에서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약 3천여 점의 시집이 있다. 이 건축물에 드러난 배치와 형상의 배후에는 건축물의 개념이 배태되어 있으며, 이 문학관 속에는 시인의 시세계를 함의하고자 했다. 이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개념은 시인의 시세계에 의지하여 건축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조태일 시인의 시적 특징은 <식칼론>, <국토> 등에서 보여준 시대의 질곡을 질타하는 특유의 거침없는 목소리와 <가거도>등에서 보여준 원시적 삶에 기초한 역동적 움직임에서 오는 삶의 순결성과 건강성, <나의 처녀막> 연작 등에서 보여준 우리로서의 민중적 연대감 획득,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등에서 보여지는 모성적 자연에 대한 성찰 등에서 나타나는 시세계의 압축된 언어들을 어떻게 건축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걸려진 '조국 땅덩이'라는 구체적 대상에 단단히 뿌리박은 건축적 서정성'을 모티브로 하여 대지의 형국을 재구성하고 건축개념화 하였다.

(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목구조 및 일부 철골조)

*묘소



살아생전 끝끝내 5.18 유공자 신청을 거부했던 시인 조태일(99년 타계)의 유택(幽宅)이 8일 경기도 용인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묘지로 옮겨졌다. 그가 명실상부한 5.18 유공자로 정식 인정받은 것이다. 이는 막역지우인 박석무 5.18기념재단 이사장, 후배 김준태 시인 등이 노력한 결과다. 김준태 시인은 조태일 시인의 행적을 담은 인우보증서를 작성하고, 조 시인의 부인 진정순(서울 당곡초등학교 교장)씨와 함께 대전 정부문서보관소를 찾아 80년 당시 조태일의 재판기록 및 사면관련 문서를 찾아내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다.

1. 金東里의 生涯

20037002 최 동 호

‘순수문학’의 거두이자 파수꾼이었던 작가 김동리는⁶⁾ 1913년 경북 경주시 성건리 186번지에서 아버지 김임수(金任守)와 어머니 허임순(許任順) 사이의 오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주벽 심했고 이를 보다 못해 기독교신자가 되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김동리는 경주 계남소학교, 대구 계성중학교를 거쳐 서울 경신중학교를 중퇴할 때까지 모두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 다녔다.

부모의 불화로 원만치 않았던 유년시절 김동리는 소꿉동무였던 선이와 고종사촌 누이인 남순이의 죽음을 지켜 보게 되는데 두 사람은 김동리의 마음속 연인이었기에 이 일은 그를 어릴 적부터 죽음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

죽음에 대한 고민과 가정불화는 그를 고독하게 하고, 외진 곳을 찾게 하고, 신라 천년의 전설이 수없이 어려 있는 경주의 산하를 헤매고 다니게 한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고독하고 어두운 체험들과 고향 경주의 신비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기독교 교육은 김동리의 거의 모든 소설에 드러나는 허무주의, 비현실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소재, 가족 중심의 이야기 전개와 같은 특징의 토양이 되었던 것이다.

가족 중 김동리의 삶과 문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큰형 김범부(金凡父) 선생이었다. 범부 선생은 여섯 살 때 ‘사서삼경’을 다 읽을 정도로 뛰어남 사람이었고, 만해 한용운과 벗이 될 정도로 유명한 한학자이자 독립지사였다.

김동리가 스물한 살 되던 해 서울에 있던 큰형을 찾아왔다가 그의 제자이던 미당 서정주를 만나 서로 친구가 되며, 큰형을 찾아온 한용운 선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단편소설 「등신불」⁷⁾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고향 경주에서 작은형의 일을 도우며 독서와 습작을 게을리 하지 않던 김동리는 겨울 동안 소설 한편을 완성하여 이듬해인 1935년 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김시종이란 이름으로 「화랑의 후예」⁸⁾가 당선이 된다.

그는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공부를 하기 위해 해인사에 딸린 작은 절인 다솔사(多率寺)로 들어갔다. 김동리는 다솔사에 머물면서 가끔 경주와 서울을 오갔는데 이때 「산화(山火)」 「무녀도(巫女圖)」 「바위」 「술」 「허덜 풀네」 「산제(山祭)」 등이 이때 씌어진다. 같은 해에 친구인 미당 서정주 시인도 「벽」이란 작품으로 등단한다.

1940년을 전후한 시점에 이르러 일제의 탄압이 극심해져 한글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이어서 거의 모든 신문과 잡지가 폐간된다. 1942년 단편소설 「소녀」 「하현(下弦)」 등이 일제 총독부의 검열로 전문(全文)삭제되고, 6년 동안 교편을 잡았던 광명학원이 폐쇄되는데 이어 큰형 김범부 선생이 사상 관계로 구속되고 가택 수색을 당하자 절망과 분노를 안채 절필(絶筆)을 선언하고 이후 8·15 해방 때까지 마주 등지를 방랑하며 보낸다.

그는 해방직후 우익계열 문학의 대표 주자로 나서, 문학의 사회와 현실에 대한 참여와 공리성을 중시하는 좌익계의 논리를 공격한다. 그는 순수문학을 ‘본격문학’이라 하였다. 1948년을 기점으로 남북이 분단되자 남한에서는 순수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공식이 일반화되고 그에 따라 그를 비롯한 우익계열 문인들이 문단을 장악하게 된다.

김동리는 이후 서라벌예대 교수, 한국문인협회 회장, 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하는 한편 잡지 『월간문학』과 『한국문학』을 창간하고 각종 문학상과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수상하는 등 1990년 78세의 나이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순수문학’의 대표자이자 거두로서 누구도 넘보지 못할 화려한 생을 펼쳐나간다. ‘인간과 생명에

6) 1913년 경북 경주시 출생. 본명은 始鐘(시종). 1929년 서울 경신중학교 중퇴.

7) ‘등신불(等身佛)’은 고개와 등이 굽은, 오뇌와 비원이 담긴 듯한 가부좌상인데 보는 사람의 마음을 움켜잡고 인간적인 고뇌를 지닌 부처로서 가슴에 사무치는 감동을 준다. 1961년(김동리 49세) 소설 「등신불(等身佛)」 발표.

8) 작품 「화랑의 후예」에 나오는 숙부님과 숙모님은 바로 사직동에 살던 형님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그때 체험이 배경에 깔려 있다.

대한 탐구'로 요약되는 김동리의 삶과 문학은 1995년 6월 그의 죽음으로 83년이라는 긴 여정을 맺는다.

II. 김동리의 작품 세계

20061136 이 혜 림

1934년 시 「백로」⁹⁾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함으로써 등단하게 된 김동리는 문학의 순수성과 예술성을 강조하였고 민족문학 정립에 기여한 작가이다. 거의 문학은 종교와 결부되어 있고, 인간의 운명과 구원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그러면서 작품의 예술성을 추구한 것이 특색이다.

사회 전체의 혼란과 대립이 문학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던 해방공간에 그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해방 전에는 신비주의와 허무주의를 작품에 반영하였고 해방 후에는 인간성을 옹호하고 생의 근원적인 의의를 추구하였다.

김동리는 운명과 관련시켜 '태어남'과 '죽음'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다. 자연에서 낳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그 자연은 김동리에게 있어 인간의 근원이다 그 인간과 자연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탄생과 죽음은 하나의 문제로 귀착된다. 초기작인 「산화」에서부터 어머니는 죽은 아이를 낳더니, 「생일」에서는 손자의 탄생과 할아버지의 죽음을 동시에 교차시킨다. 「무녀도(巫女圖)」 「바위」 「혈거부족」 「달」 「살벌한 황혼」 「홍남철수」 「진달래」 「밀다윈 시대」 「여수」 「당고개 무당」 「등신불」 등 주요 작품의 대부분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죽음은 대부분 현실적인 패배가 아니다. 자연으로 귀의다. 그래서 그의 작중 인물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것은 부활이요, 재생의 의미를 갖는다.

이런 내세관은 그의 샤머니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의 샤머니즘은 신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근원이기도 하다. 거의 인간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 원초적인 지점에 신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샤먼의 세계이다. 김동리에게 있어 불교와 기독교와 샤머니즘은 원래 하나다. 성경에 기대어 쓴 소설로 「사반의 십자가」 「목공의 요셉」 「부활」 등이 있고 불교 혹은 절간에 기대어 쓴 소설로는 「술거」 「진달래」 「여수」 「등신불」 등이 있다. 그런가 하면 샤먼에게 기대어 쓴 소설로는 「무녀도」 「달」 「당고개 무당」 등이 있다. 김동리는 이와 같이 기독교와 불교와 샤먼의 세계를 각각 즐겨 다루었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그것들은 결국 하나다.

그보다 오히려 「황토기」 「역마」 「먼산 바라기」의 인물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물들은 신비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 신비의 세계는 노장사상(老莊思想)에 바탕을 둔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샤먼이든지, 그들 세계의 인물들은 원래 토속적이었다. 그런 종교와 관련된 인물들뿐이다. 김동리 소설의 작중 인물들은 양복 입은 사람이 없었다. 작가의 시대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은 그의 소설이 얼마나 많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있는지 쉽게 입증해 준다. 모두가 한복 바지저고리 아니면 치마저고리를 걸친 인물들뿐이다. 그나마 이들은 아주 노쇠했거나, 미숙하거나,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현장으로부터 일단은 밀려나 있는 인물들이다. 그만큼 그들은 가난에 절어 있거나 퇴색한 인물들로서, 원초적인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동리가 추구하는 세계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샤먼의 세계라면, 또 하나는 노장(老莊)의 세계이다. 그것들은 다시 원초적 자연이라는 점에서 하나일 수 있다. 동양인에게 자연은 곧 신이요, 인간이

9) 1934 (김동리 22세)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시 「백로」 입선. 카톨릭 천년에 시 「망월(望月)」 「고독」 「바람부는 날 이후」 「바위」 등을 발표.

믿음이 김동리 문학의 출발점이다. 그의 소설이 끝내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들기를 거부하고, 하늘 아니면 물 위에 떠다니기를 바란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III. < 역마(驛馬) >의 이해

20051140 조 혜 근

김동리의 「역마(驛馬)」¹⁰⁾는 『백민지』¹¹⁾지에 실린 단편 소설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 하동과 구례, 쌍계사라는 절로 이르는 세 갈래 길목의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화개장터는 역마살과 관련이 있다. 장터란 역마살이 낀 장돌뱅이¹²⁾들의 집결지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가는 장소이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화개장터에서 주막을 하며 장돌뱅이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옥화의 아들 성기가 역마살을 지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런 것은 배경 적인 요소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동리의 「역마(驛馬)」는 역마살로 표상되는 한국인의 운명관이 인간의 삶의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신의 사주와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주어진 운명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인간의 일방적인 패배라기보다는 팔자소관이라는 한국적 운명관에 순종함으로서 도리어 생명의 리듬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작가는 「역마(驛馬)」라는 소설을 통해 운명에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순응함으로써 인간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작가의 문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 역마살이 낀 사람들로 인해 본인과 주변인들의 기구한 운명을 엿 볼 수 있는데 할머니는 남사당패와 단 한번의 만남으로 어머니 옥화를 낳고, 어머니 옥화는 떠돌이 종과 만나 인연을 맺어 성기라는 자식을 낳는다. 성기는 역마살 혹은 당사주(唐四柱)가 꺼서 운명적으로 떠돌아다닐 팔자를 타고났다. 여기서 모든 남자들은 밖으로 향해있고 여자들은 중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라기보다는 운명이라는 필연성과 관계가 있다. 역마살이 끼면 떠돌게 마련이고, 그런 중에 여자와의 인연으로 자식을 낳게 되며, 그 자식과 남은 여자는 마냥 기다림으로 평생을 보내야 하는 속

10) 1948 (김동리 36세) 김동석, 김병규 등 좌익 비평가들과의 문학 논쟁이 절정을 이룸. 그들과의 공개 토론에서 문학의 모순을 지적하며 갈채를 받음. 소설 「역마(驛馬)」, 「어머니와 그 아들들」, 「개를 위하여」, 「절 한번」, 「광풍(狂風) 속에서」와 평론 「김동인론(金東仁論)」, 「김소월론(金素月論)」, 「이효석론(李孝石論)」을 발표. 첫 평론집 『문학과 인간』을 펴냄. 만국일보 편집국장에 취임.

11) 백민 문화사에서 1945년 12월에 창간되어 발행한 종합 교양지. 편집 겸 발행인 김송(金松). 백의민족의 주체성을 찾자는 뜻에서 백민(白民)이라 하였다. 한국 민족의 자율적·자주적 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창간했으나, 8·15광복 직후 좌우격돌의 와중에서 민족문학의 순수성을 고수하기 위해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을 도맡아 벌였다. 1950년 5월에 22호를 발행하고 23호를 준비하던 중 6·25전쟁이 일어나자 제본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12) "장돌림뱅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장돌림이란 각 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수를 말한다. 장돌뱅이는 각 지방의 물건을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며,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사의 역할도 있었다고 한다.

명적인 삶의 모습을 보인다.

그의 「역마(驛馬)」는 거스를 수 없는 인간의 운명과 근친상간의 문제를 토속적이고 향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가 일관되게 추구했던 전통세계의 한 모습이 사주팔자라는 운명관을 소재로 구현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서의 축을 이루는 한의 세계를 극화함으로써 치열한 삶의 현장을 제시하고 있다.

IV. 화개장터와 < (驛馬)>의 배경

20051139 정 해 인

「역마(驛馬)」는 김동리 소설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운명’의 힘을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돌아다녀야 하는 역마살을 제재로 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과학적, 합리적 세계관에서 보자면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나라 전통의 토속적인 민간 신앙의 맥락에서 보자면 이러한 운명은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거대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을 거스르려는 인물들의 노력이 그 힘 앞에서 좌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원받는 길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 ‘역마’의 주제이다. 「역마(驛馬)」가 드러내고자 하는 점도 바로 이와 같은 운명의 힘이다.

소설이 필연성과 사실성을 그린다고 본다면, 이 작품은 우연으로 점철된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루 저녁 놀다 간 남사당에게서 옥화를 낳는 할머니, 떠돌이 중으로부터 성기를 낳게 된 옥화, 마침내 엿목판을 메고 유랑의 길에 오르는 성기 등 삼대에 걸친 역마살의 내력이나, 옥화와 계연의 만남, 옥화가 계연이 그녀의 이복 동생임을 알아차리는 계기 등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한 사건들이 우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 우연들은 김동리의 소설 속에서는 단순한 우연에 그치지 않고 운명의 지위로 올라선다. 이 소설에서 등장 인물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이미 운명적으로 주어져 있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단단한 테두리에 둘러싸여 있다.

「역마(驛馬)」의 배경으로 전라·경상도의 경계 지역인 화개 장터를 바탕으로 이 소설은 그려지고 있다. 공간적 배경이 되는 ‘화개장터’는 떠돌이 장돌뱅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주인공들의 내력을 간직한 공간이면서 남녀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다. 화개 장터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역으로 온갖 장사치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떠돌이 인생들이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인 셈이다. 따라서 화개장터의 사람들이란 설사 그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토박이이기보다는 떠돌이이기 십상이다. 그들 간의 인간적 관계 역시 항구적이기보다는 임시적,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은 「역마(驛馬)」의 주요 인물들에게서 그대로 확인된다. 성기가 역마살이 끼어 떠돌아다니고 싶어하는 점이나, 체 장수 영감과 계연이 스쳐지나가듯 왔다가 가는 것, 체 장수 영감이 옥화의 아버지이고 계연은 이복 동생이라는 사실 등 그 모두가, 역마살 낀 인물들의 불안정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역마’는 그 배경을 화개장터로 설정함으로써 주제의 개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향토색 짙은 현실공간을 택해 인과관계에 얽혀드는 인물을 구성하는 방식의 작품을 유독 많이 남긴 김동리이지만, 「역마(驛馬)」에서처럼 소설적 상상력이 화개와 쌍계사라는 현실의 지평 위에 확연히 뿌리내린 경우는 드물다. 잘못된 사랑의 운명에 얽혀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 화개장터를 무대로 너무도 애뜻하게 펼쳐진다. 다분히 ‘몽환적(夢幻的)’이기까지 한 화개의 풍경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V. 김동리 관련 유적

20061137 전 상 호

V-1.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배경

화개골의 으뜸 명물은 역시 들머리에 있는 ‘10리 벚꽃길’이다. 지금은 벚나무들이 거뭇거뭇한 버찌 열매들을 달고서 녹음굴을 이루어 손님을 맞는다. 화개골 들머리의 화개장터는 김동리의 소설 <역마>의 무대이며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로 많이 알려져 있다. 옛날 ‘한국 3대 장터’ 중의 하나였으나 너무 유명해져서인지 주변에 모텔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소박한 시골장터의 모습은 완전히 탈색해 버렸다.



《지리산 화개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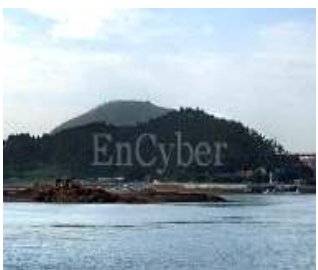


《지리산 피아골》

V-2.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

예기소는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의 배경이다. 소설 속의 모화가 비명에 간 부잣집 며느리의 혼을 위로하고 예수귀신이 진짜인가, 신령님이 진짜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굿을 하다 끝내는 빠져 죽은 곳이다. 자기 신념이나 종교를 위해 목숨을 초개처럼 버리는 사람들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동리는 모화를 통해 종교적 신념의 허상, 쓸쓸함을 얘기하려 했던 것 같다. 예기소는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앞을 흐르는 형산강 상류에 있다. 이 곳은 동리의 소설 무대로 널리 알려졌지만 경주의 주요하천인 서천과 북천이 합쳐지는 곳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서천은 울산에서 발원해 포항 앞바다에서 강물로서의 생명을 마감하는 형산강 상류인데 경주의 남쪽 외곽인 박물관과 반월성을 휘감아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남천과 합쳐져 예기소에 이른다. 북천은 지금은 변화가가 된 경주의 동천과 황오동을 관통하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예기소에서 서천과 몸을 섞어 포항 앞바다로 질주한다.

이 방향이 다른 두 물줄기가 합류하면서 소용돌이가 생기고 땅이 파져 깊은 소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깊이가 명주꾸리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로 깊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저 평범한 강물에 다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예전에는 한해에 한명씩 물에 빠져죽는다는 우울한 전설이 전해지기도 했다.



《무녀도》



《예기소》

〈12조-박경리〉

I. 박경리의 생애

20061138 전 새 례

박경리는 1927년 10월 28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났다. 1946년 진주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황해도 연안여자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55년에 김동리의 추천을 받아 단편 《계산(計算)》과 1956년 단편 《흑흑백백(黑黑白白)》을 《현대문학》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나왔다.

195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하여 단편 《전도(剪刀)》 《불신시대(不信時代)》 《벽지(僻地)》 등을 발표하고, 이어 1962년 장편 《김약국의 딸들》을 비롯하여 《시장과 전장》 《파시(波市)》 등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성이 강한 문제작들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9년 6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995년에 5부로 완성된 대하소설 《토지(土地)》는, 한국 근·현대사의 전 과정에 걸쳐 여러 계층의 인간의 상이한 운명과 역사의 상관성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으로 영어·일본어·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호평을 받았다.

「토지」는 서사 음악극으로 무대에 올려지기도 했다. 「토지」(전4막)는 박경리의 소설을 80분짜리 음악극으로 새롭게 꾸민 것이다.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김영동씨가 작곡하고 시인 겸 소설가 이승하씨가 원작을 각색했다.

1957년 현대문학 신인상, 1965년 한국여류문학상, 1972년 월탄문학상, 1991년 인촌상 등을 수상하였고, 1999년에는 한국예술평론가협회에서 주최한 20세기를 빛낸 예술인(문학)에 선정되었다.

그 밖의 주요작품에 《나비와 영경귀》 《영원의 반려》 《단층(單層)》 《노을진 들녘》 《신교수의 부인》 등이 있고, 시집에 《뭇 떠나는 배》가 있다.

II. 박경리의 작품세계

20061140 최강철

20061141 하 강

20061142 하성민

20061143 한민수

박경리는 1955년에 문단에 데뷔한 이래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1969년부터 연재를 시작, 26년에 걸친, 4만 여장 분량의 '토지'는 박경리 개인에게나 한국문학에 있어서나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여러 논의들, 즉 역사소설인가 아닌가가 문제시 되었다거나 농민소설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다거나 총괄체 소설, 가족사 소설, 민족사 소설, 총체소설 등의 다양한 장르로 규정되어 온 것은 곧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서사구조, 다양한 층위의 세계가 중층적인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토지'는 거대한 원고지 분량에 걸맞게 7백 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시간적으로는 1897년부터 1945년까지라는 한국사회의 반세기에 걸친 기나긴 격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동학혁명에서 외세의 침략, 신분질서의 와해, 개화와 수구, 국권 침탈, 민족운동과 독립운동,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격동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박경리의 문학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소외문제, 낭만적 사랑에서 생명사상으로의 흐름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그 생명사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작품이 바로 '토지'이다. 박경리에 의하면 '존엄성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파시 제1권, 131면, 1993)인데 박경리는 그의 작품에서 이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본능 이상으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토지'의 주인공 서희는 바로 이 존엄성을 지키려는 가장 강한 의지의 인물로 등장한다. 따라서 그의 문학에 있어서 존엄성의 문제는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게 하는 기존의 관습과 제도 및 권력과 집단에 대한 비판, 욕망의 노예가 되어 존엄성을 상실한 인간들에 대한 멸시와 혐오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존엄성을 상실할 때 바로 한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 한을 풀어가는 과정이 곧 박경리 문학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토지'를 논할 때 항상 등장하는 생명사상은 바로 이 존엄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박경리는 성장의 체험을 통해, 자기의식을 소유하지 않은 삶은 허망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세상의 인습에 얽매어 산다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 한 인간의 선택과 결단의 결과로 자신의 삶이 꾸러지지 않은 경우,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행복감마저도 불행일 뿐이라는 것, 이것은 남편을 붙잡아 두려한 어머니가 역설적으로 알려주었다. 이는 사랑을 구걸한 어머니와 어머니에게 흑단한 채찍을 내렸던 아버지에게 대한 반감에서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의 본질이란 자기 자신의 의식을 포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의 다른 자아 속에서 스스로를 망각하고 동시에 이러한 소멸과 망각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획득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자기의식이 원하지 않더라도 어떤 사회적 격변에 몸 달지 않은 경우, 그것은 곧 고독이었고 불행이었으며 죽음이었다. 때문에 자기의식에 강렬한 열망은 사회로 향하지 않고, 대신에 사랑으로 향한다. 때문에 박경리의 소설에는 낭만적 사랑과 좌절을 다룬 소설이 많다. <가을에 온 여인>, <노을 진 들녘>, <영원한 반려>, <단충>, <성녀와 마녀> 등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이 낭만적 사랑에의 열정은 여성 억압적 현실에도 눈 돌리게 한다. 작가는 여성인 어머니를 억압하는 남성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억압 피억압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한 인간의 운명을 불행한 것으로 만드느지를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남정에 의한 여성 지배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박경리는 아주 일찍부터 여성문제를 다루는 작가가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관심은 그의 초기작인 <전도>에서부터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파시> 등에서 나타난다.

1950년 박경리의 눈앞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으며, 단란했던 가족공동체는 부스러져버렸다. 박경리 역시 이 폭풍우에 휩쓸렸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또 전쟁 직후에는 아들을 잃는다. 이러한 고통은 박경리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이 잇단 고통은 불합리한 출생으로 생겨난 비극적 인식을 더욱 고착시켜 놓는다. 이 세상에 선이란 존재하지 않고, 결국 악이 승리한다는 절망을 경험한다.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운명 또는 숙명을 생각해야 했다. 박경리는 이처럼 한국전쟁에서 맞볼 수 있는 개인적인 비극을 모두 맛보았다. 그러나 이후 그의 소설을 풍부하게 하는 여러 요인이 또한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 속에서 얻어졌으니 한국전쟁은 불행했던 출생과 더불어 박경리 문학의 질을 결정하게 된 경험내용에 속하게 되었다. 불합리한 출생으로 인해 항상 내부로만 움츠러들던 작가의 시선이 외부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의 순간만큼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나의 삶이란 없었다. 저 넓은 세상에서 자리를 차지하는 개인의 삶이 결국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이는 사회적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작가는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출생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은 나를 고집하던 작가도 하는 수 없이 동질집단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삶의 표정을 여러 사람에게서 발견하고, 불합리한 출생마저도 그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 전쟁에 대해 생생한 현장감과 더불어 좌우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각각의 이념이 지닌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4.19는 박경리의 문학에 하나의 중요한 전기를 제공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창작의 중심이 단편에서 장편으로 옮겨졌으며, 작가 박경리를 연상시키는 작중화자가 소설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외형적인 사실에서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변화의 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19는 박경리에게 한마디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을 것이다. 박경리는 개인의 불행한 운명에만 떨지 않았던가. 아니면, 개인적인 반항심만 키워오지 않았던가. 그러나 4.19세대들은 우리였고, 힘을 합했고, 또 나라를 아끼고 진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능성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 되는 모습을 잠시나마 일구어냈다. 이러한 책임감이 박경리를 새로운 소설세계로 이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나라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의 소설세계는 나아가는 것이다. 박경리는 4.19를 통해 비로소 고통의 뿌리를 찾는다. 개인적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찾자, 보다 분명한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삶이란 어떤 개인이 먼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같이 도달할 때라야 비로소 가능한 것임을 확인한다. 드디어 1969년 <토지>라는 우리 민족 문화를 응집한 거대한 작품이 시작된다. 그 소재들은 1897년 추석부터 1945년 8월까지 한반도와 그 속에 살거나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의 생애에서 골라진 문화 내용들이다. 그리고 그 작품은 1994년 8월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토지>는 일단 소설 자체가 지니는 의미가 남다르다. 한 작품을 26년 동안 연재한 경우가 한국소설사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니와, 초기의 몇몇 문제적인 작품을 쓰고는 소설사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이 무슨 철칙처럼 지켜지는 한국소설의 관행에서 박경리의 치열함은 단연 남다르다. <토지>는 작가 박경리의 삶의 종합이자 문학의 종합이다. <시장과 전장> 등 현대 도시를 다룬 계열과 <김약국의 딸들> 등, 초기 근대와 농촌 공동체를 다룬 계열의 소설이 합쳐지는 지점이다. 이를 통해 <토지>는 <한>이라는 정서에 몰두한다. 즉 훼손된 것까지를 감싸 안는 순백의 삶으로 한국 여인들의 <한>을 찾은 것이다. <한>은 위대한 모성의 세계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지아비를 위해 아들을 위해 끝내 좌절하지 않았던 여인네들의 한을, 그는 이 훼손된 시대의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인간적 덕목으로 설정한다.

III. 박경리의 『토지』에 대한 이해

중국학과 20031214 김보라

사학과 20021569 이재우

<토지>는 박경리가 1969년부터 집필한 대하소설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 을미왜병(1895) 등을 거친, 1897년 한가위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맛본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한국 근대사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경남 하동 평사리라는 전형적 한국 농촌을 비롯하여 지리산, 서울, 간도, 러시아, 일본, 부산, 진주 등에 걸치는 광활한 국내외적인 공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계보는 4대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적인 고통과 민족애, 가정사에 얽힌 이야기를 다루었다. 탈고하기까지 26년간의 집필 기간, 원고지 3만 매가 넘는 분량의 역작인 동시에 역사와 운명의 대서사시로서 한국인의 삶의 터전과 그 속에서 개성적 인물들의 다양한 운명적 삶과 고난, 의지가 민족적 삶으로 확대된 한국의 수작(秀作)이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토지는 농경 사회에서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토지에 대한 믿음과 이에 대한 믿음을 깨뜨리는 외부 세계의 대립 속에서 각 인물들

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줄거리 (1부 요약)

1897년 무렵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는 5대째 지주로 군림하고 있는 최참판댁을 중심으로 주로 농민들로 구성된 마을 사람들이 큰 사건 없이 각자의 삶의 유형에 따라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었다. 최씨 집안의 유일한 혈육인 어린 서희는 엄격하면서도 자애로운 할머니와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하인 봉순이를 동무하여 자라고 있었고, 머슴으로 들어온 구천이는 원가 많은 고뇌와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머슴으로 있는 구천(김환)이가 그 집 머느리인 별당 아씨와 눈이 맞아 함께 도망가 버린 사건이었다. 원래 구천이는 최씨집 안주인인 윤씨 부인이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갔다가 동학군의 장수이며 우관 스님의 동생인 김개주에게 겁탈 당하여 낳은 사생아로서 김개주가 죽은 뒤에 최씨 집 머슴으로 있게 되었고, 자신의 출신을 알고 있었던 관계로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윤씨 부인은 그러한 자신의 과오 때문에 아들 최치수와 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자신의 죄업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불륜의 과거에 대한 여인의 한을 지니며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치수는 구천이와 자신의 아내의 행방을 뒤쫓으며 어머니의 과거를 캐고자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회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은 채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격적으로 매저키스트(피학적 도착 증세)적인 면모와 폐쇄성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서울의 몰락한 인척인 조준구와 자신의 친구인 이동지 등에게 냉소적인 시국관을 드러내 보이며 하인들에게 말없는 억압의 태도로 일관하고, 사냥을 빙자한 강포수, 수동이와 함께 지리산으로 구천이와 아내를 찾아 떠났다가 실패하고 돌아온다. 그는 그후 자신의 재물을 탐내는, 노름꾼으로 전락한 양반의 후예 김평산과 사랑방 시중을 드는 중 귀녀에 의해 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윤씨 부인에 의해 탄로가 나서 김평산, 귀녀, 칠성이가 처형되고, 김평산의 부인 함안댁은 목을 매어 자살하고, 귀녀의 소생 두메는 강포수에 의해 양육되며, 칠성이의 부인 임이네는 마을 떠나 온갖 곡절을 겪은 다음에 용이와 동거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겪어오는 동안 마을에 호열자가 유행하기까지는 최씨 집안과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옛날이나 다름없이 유지되지만 전염병이 마을을 휩쓸게 되면서 최씨 집안의 몰락이 찾아온다. 최씨의 소작을 관리해 오던 김서방을 필두로 해서 강청댁, 봉순에 등을 목숨을 잃고 최씨 집안을 붙들여 온 기동 윤씨 부인까지 전염병의 희생자가 된다. 그러자 서희는 수동이, 길상, 봉순이의 보호를 받는 혈혈단신의 외로운 처지가 되고, 그 동안 최씨 집안의 식객 노릇을 하던 조준구가 서희의 뒤를 보아준다는 명목으로 서울의 가족을 이끌고 와서 최씨 집안의 모든 재산과 실권을 장악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억압을 자행하게 된다. 급기야 그는 최씨 집안 유일한 혈육인 서희를 몰아내고 마을 사람들을 분열시키면서 일본인들의 힘을 빌려 모든 재산을 손아귀에 넣게 된다. 을사 보호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가운데 조준구의 착취에 못 견디게 된 농민들은 윤보의 지휘 아래 최참판댁을 습격하나 조준구를 찾지는 못하고 곡식과 재물을 탈취하여 의병에 가담한다. 그러나 윤보의 죽음과 함께 의병은 결국 패산하고 서희는 용이, 영팔, 길상, 임이네, 월선, 김훈장 등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도로 떠난다.

IV. 평사리와 『토지』의 배경

20031162 장 보 영

구한말로부터 식민지 시대를 꿰뚫으며 민족사의 변천을 그린 작품 『토지』. 이는 사회적, 역사적 시공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 식민지 자본주의를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진실이, 작가의 역사적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 된 작품. 허구이나 허구가 아닌, 작가의 상상력의 소산이나 충분한 사료를 토대로 상상된 공간은, 바로 작품 『토지』의 무대가 되는 장소다. 배경 공간으로는 평사리를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으로 삼고서, 용정, 진주, 서울, 신경, 지리산 등을 꼽을 수 있다.

경남 하동군 하동읍 평사리. 주위를 둘러보자. 최참판 댁의 별당, 서희가 자주 놀던 연못, 최치수가 주로 머물던 최참판 댁의 사랑채. 생생한 공간 감각이 느껴진다. 실제 드라마의 촬영지가 되기도 한 최참판 댁. 드라마의 세팅이, 인물의 활동 공간 제공과 더불어 극의 전체 분위기를 설정하는 역할도 맡아 함을 인지했을 때 이곳의 활동적인 느낌은 작품을 살아있게 만든다. 멀리 보이는 평야와 그 사이를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이 인상적이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으며 경계지우는 섬진강, 이는 평사리의 젖줄이다.

작품 속 공간의 특성과 의미. 이 장에서는 그 대상을, 『토지』연작 제 1 부의 주요 공간. 바로 우리가 찾은 하동 ‘평사리’에 한하여 살펴봄을 앞서 밝힌다. 평사리를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연곡사, 남동쪽에 위치한 하동으로 연결되는 사선의 패턴. 이는 행위자들이 끊임없이 평사리를 오고가며 서사의 흐름에 따라 점차 그 이동의 폭을 넓히고 있음을 알려준다. 특기할 만한 것은, 평사리를 중심으로 상향 이동 (서울, 지리산, 간도)하는 계층은 주로 양반, 하향 이동 (통영, 진주) 하는 계층은 주로 평민이라는 점이다.

『토지』는 평사리의 최참판 家를 중심, 농민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서사를 시작한다. 한국 근대 社會史에 대한 연구를 필요 하에 잠시 인용하면, 조선왕조 말기 지주제도에 있어서는 경제 外적 강제 그 자체는 대체적으로 소멸되고, ‘경제적 강제’가 더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작품 속에서 사회 신분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참판 家와 평사리 마을 사람들의 관계가 여전히 종속적인 것으로 보이는 이유. 이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 강제성이 그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계는 최치수가 살해당하고, 윤씨 부인과 그 심복들이 전염병으로 죽은 후에 급속도로 변한다. 최참판 家의 유일한 핏줄인 ‘서희’는 더 이상 ‘권력’으로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일파 조준구에 맞서는 운명적 공동체로 함께 공존하는 삶을 택한다.

결국 최서희와 평사리 마을 사람 일행은 간도 ‘용정’으로 함께 도피한다. 그들이 평사리를 떠나면서 친일파 조준구의 세력은 더욱 굳어지고, 남은 평사리 마을 사람들은 조준구와 ‘지주 - 소작인’의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이는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최참판 家와 맺은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결속력’과 그 성질이 판이하다. 지주와 소작인 관계라는 사실은 유사하나 최참판 가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관습적 친분 관계’는, 조준구가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요컨대 평사리는, ‘농촌 공동체’로서, 최참판 家 몰락 이후에도 지주와 소작인 관계가 지속되는 공간이기는 하나, 최참판 家의 절대적 영향력이 조준구로, 다시 서희로 지주가 달라지며 피 지주들과의 관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평사리’는 공간 자체가 폐쇄되어 있어서 등장인물 전체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있고, 개개인의 생활 자체가 그 집단 속에서 자아를 드러내기엔 충분하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외지와 단절된, 그리하여 폐쇄적인 삶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작은 농촌의 공동체는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것으로 한해 비쳐

질 소지가 다분하다. 1부에서 등장인물들이 무대 배경 평사리를 크세 벗어나지 못함을 생각하면 가능한 의견이다. 그러나 평사리는 닫혀 있거나, 정채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외부와 소통하려고 하고, 또한 소통하는 공간이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이 뱃길을 이용 혹은 육로로 쉽게 하동을 이라든지, 화개읍, 지리산, 구례 등지 등을 오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물리적 이동 이상의 ‘바깥 세계와의 소통에 대한 인간의 염원’을 느낄 수 있다.

V. 박경리 관련 유적

20061144 함 다 미

1. 토지문학관

뒤로 오봉산 다섯 봉우리 높은 산이 있고, 그 중간 자락에 자리한 건물로 지붕이 흙색 기와이다. 대지 3000여 평 연건평 800평 규모이며, 4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경리 작가가 80년부터 94년까지 살았던 집은 1미터 정도의 낮은 대문 자물쇠가 열린 채였고, 흙색의 담장이 자연스럽게 둘러쳐져 있다. 벽, 지붕이 흙색인 2층집이다. 입구 대문근방에는 채송화가 가득 심어져 있다. 집 주위에는 그리 크지 않은 소나무와 은행나무 등이 집과 조화를 이루었다. 나무 사이로 집의 윤곽이 뚜렷이 보인다.

2. 토지문학관, 토지문학공원[土地文學公園]



<박경리씨 집>



<입구 표석>

원주시 단구동에 위치해 있으며, 넓이는 1만 489㎡이다. 한국 문단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대하소설 《토지》를 주제로 꾸민 공원이다. 소설가 박경리의 옛집이 1995년 택지개발지에 포함되어 헐릴 위기에 처하자,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원부지로 결정하여 1997년부터 2년 간 공사를 한 끝에 1999년 5월 개원하였다. 박경리의 옛집과 평사리 마당, 홍이 동산, 용두레벌 등의 주제로 꾸며져 있다. 이는 모두 《토지》에서 따온 지명들이다. 이중 옛집은 작가가 1980년부터 1994년 8월 15일까지 《토지》(전16권)를 집필한 곳이다. 안채와 안마당, 사랑마당, 별당마당, 텃밭 등이 조성되어 있다.

평사리 마당은 섬진강과 백사장, 뚝길로 꾸며졌으며, 홍이 동산은 뒷동산으로 정자바위가 있다. 그리고 용두레 벌에는 신작로와 철길, 일송정, 용두레 우물, 만주 들길, 돌무덤과 흙무덤 등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만주의 지명을 따온 시설이 들어서 있다. 한편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는 토지문화관이 세워져 있어 문학도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 토지문화관에서는 각종 학술, 문화행사를 열고 작가들에게 창작 지원도 하고 있다.

3. 하동 평사리

소설 '토지'는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써, 박경리 선생이 25년에 걸쳐 완성한 작품으로 원고지 매수만 4만장으로 600만자에 달하는 말 그대로 대하소설(大河小說)이다. 갑오동학 농민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백 년 간 유지되어온 봉건질서가 뿌리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한말의 혼돈에서부터 일제 식

민시대를 거쳐 해방에 이르기까지 60여년을 관통하는 이 작품은 섬진강 자락에 자리 잡은 하동 평사리에서 발원한 이야기로 지리산, 통영, 서울, 중국, 간도, 만주, 일본 등지로 그 활동무대를 넓혀나간다. 결국 평사리는 소설 '토지'의 근간이며 뿌리가 되는 셈이다. '최참판댁'.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곳. 소설 '토지'속의 서희와 길상의 운명적인 몰래 사랑이 시작된 곳이다. 최참판 댁은 오로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탄생시킨 곳이지만, 그래도 실존하는 공간이 바로 최참판 댁이다.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들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최참판 댁은 자리하고 있다. 하동군이 지난 1998년부터 국비를 포함해 4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설 '토지'의 주요무대를 고스란히 연출해낸 것이다.

5년간 순차적으로 공사가 이뤄진 최참판 댁은 지난 2002년 사랑채가 완성되면서 당 뒷채 문간채 중문채 사당 안채 우물 협문 별당 채 행랑채 뒷밭 등을 갖추게 된다. 한옥 11동 99칸의 버젓한 대가집. 상상 속의 '토지'무대는 그렇게 탄생했다. 최참판 댁은 우리의 고전 '춘향전'에 나오는 무대를 재현한 광한루에 이어 작품 속의 가상공간을 현실화한 두 번째 무대인 셈이다. 한때 현실과 작품을 착각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최참판 댁이 어디냐고 묻는 것을 보고 재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소설 '토지'의 위력이다. 작품속의 주요무대를 현실화하도록 이끄는 힘을 소설 '토지'는 갖고 있었던 것이다. 최참판댁 주변에는 작품에서 나오듯 거대한 대나무 숲도 조성돼 있으며 연못도 파놓았다. 우물도 있고 그 옆에 자리 잡은 외양간에는 소 한마리가 눈을 깜빡이며 관람객들을 구경한다. 집안 곳곳에는 도자기 서화 고서 등이 즐비하게 늘려 그 옛날 대가집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최참판 댁 뒤편에 건립된 문학관의 명칭도 '평사리 문학관'이다. 박경리 선생이 부끄러움이 많은 탓에 살아 있는 동안은 토지와 관련된 명칭을 쓰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임시 명칭이라고 하동문화회 회원들은 말한다. 언젠가는 '토지문학관'으로 바뀔 것이다. 평사리문학관은 1관에는 박경리 선생 기념관으로 추후 육필원고 등을 비치할 예정이다. 2관은 하동지역 문인관으로 활용된다.

박경리 선생과 평사리는 대단한 인연이 있다. '토지' 작품의 모티브를 얻은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박경리 선생이 우연찮게 이곳을 지나가다 듣게 된 단순한 이야기 하나가 대하소설 '토지'를 탄생시켰는데 이야기는 이렇다. 만석지기 사대부가 이곳에 살았는데 엄동설한에 아이를 업은 아낙이 동냥을 왔다가 그 집 하인들에 의해 쫓겨나게되고, 그 때 아낙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기 직전 사대부집에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다.

"오늘 우리 두 입은 먹을 것이 없어 죽지만 너희 집 곳간에는 양식이 넘쳐나도 먹을 입이 없을 것이다."

바로 '절손의 저주'인 것이다. 박경리 선생은 그 이야기를 '토지'의 출발로 삼았다. 그래서 여장부 '서희'가 탄생했고 머슴 '길상'이 등장하는 것이다. 최참판 댁은 앞으로는 들판이 시원스럽게 펼쳐지고, 뒤로는 대나무 숲이 우거진 곳으로써, 주변에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섬진강이 있고 지리산 등 곳곳에 관광지가 널려 있다. <사진 출처 : 야후 이미지>

박경리는 1960년대의 어느 날, 화개의 친구 집을 방문하는 길에 악양 무덤들을 보고 당시 구상하고 있던 토지의 무대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설을 집필하는 도중 평사리를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소설 속의 마을과 평사리의 마을이 같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토지 속의 최참판댁은 평사리에서 2.3 km 떨어진 정서리 상신마을에 소재한 「조부자집의 가족사와 너무나 흡사하다. 조부자집은 현재 본채는 없고 행랑채와 전통 연못이 옛날 그대로 남아 있다.

악양들의 옥답과는 달리 산 쪽으로 다가앉은 마을에는 유난히 돌이 흔하다. 거의 모든 집의 담이 돌로 되어 있음은 물론 마을 뒤편 다랑이논의 논둑 역시 돌을 쌓아 만들어 놓았다. 언덕배기에는 단감나

무와 밤나무밭으로 일궈 땅밖에 모르는 농부들이 박토를 일구며 흘린 땀을 짐작케 한다.